

陶淵明의 儒家思想 研究

林采龍*

<目 次>

1. 序 言
2. 文學的 背景
3. 儒家의 文學觀
4. 陶淵明의 儒家思想
5. 結 語

1. 序 言

陶淵明(365~427)은 魏晉時代의 一流詩人일 뿐만 아니라 中國文學史上에서도 屈指의 大文豪이다. 作品에 나타난 感情의 眞實性和 人品의 高潔함은 오직 屈原만이 그에게 比肩될 뿐이다.¹⁾ 또, 隱逸詩人의 宗²⁾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政治暗黑의 時代와 清談이 盛行한 魏晉時代에 태어나 山水에 情을 依託하였다. 大自然의 懷抱 속에 들어갔으나 清談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情을 쫓아 放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純粹하고 깨끗한 理想과 높은 人格 및 眞實되고 淳朴한 性品 그리고 悠遊하고 閑適한 生活은, 모두 그의 作品과 合一되어 永遠한 生命력을 構成하였던 것이다.

陶淵明은 한참 젊은 나이에 出仕와 隱退라는 갈등과 모순 속에서 다섯 번이나 들락달락 하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은퇴를 하여 죽을 때까지 固窮節을

* 順天大學校 敎養科 敎授

1) 車相轅, 《中國文學史》, 文理社, 1974, p.208.

2) 梁,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지켰다.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또 손수 논밭을 갈아 먹으면서도 그는 오직 道를 지킬 수 있으므로 해서 언제나 “悠然見南山”할 수 있었다. 梁의 昭明太子 蕭統(501 ~ 503)과 淸의 沈德潛(1673~1769)은 陶淵明의 고매한 정신을 탐색하여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의 문장은 함께 짝지을 만한 이들이 없다. 辭彩가 精拔하며 跌宕하고 昭彰하여 홀로 못 사람을 초월하며, 억양이 상쾌하고 밝아서 그보다 더 앞설 者가 없다. 마치 흰 파도를 가로질러 흐름과 같이 時流들의 文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靑雲에서 바로 오름과 같이 時事를 말하면 지적인 바를 가히 상상할 수 있으며, 회포를 논하면 밝고도 또한 진실되다. 게다가 곧은 지조로써 꺾이지 않고 道에 安住하고 홀로 절개를 지켰으니, 손수 농사지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재물이 없어도 병으로 삼지 않았다.³⁾

陶淵明은 歸去來辭를 읊으며 돌아온 以來로, 자연을 사랑하고 고향의 丘壑을 지키며 詩酒로 自娛하고 貧賤을 잊으며 樂天하고 無怨할 수 있었으니, 慷慨한 뜻이 때로 그의 詩語에 나타난다. 대저 헛되이 음주하지 않았으며 <詠荊軻> 등 諸詩를 읊으며 곧 죽히 그 기탁한 것을 볼 수 있으니, 매양 光風霽月을 만날 때면 沖淡閑遠한 정취를 寫出하고 卓然히 은거하여 영합하면서 속된 생각의 범위 밖에 존재하였으니, 古今隱逸의 宗이요, 田園詩의 祖로 삼은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唐의 王維·儲光羲·韋應物·柳宗元·白居易, 宋의 王安石·蘇軾 등도 (陶淵明을) 배우고 각기 그의 성격에 가까운 바를 터득하였다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陶淵明은 지극히 열렬하고 豪氣로운 사람으로서 본래 意氣가 飛揚했으나 中年 이후에 점점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에 집착할 필요

-
- 3) 南朝 梁, 昭明太子蕭統<陶淵明集 序>: “其文章不羣. 辭采精拔, 跌宕昭彰, 獨超衆類, 抑揚爽朗, 莫之與京. 橫素波而傍流, 于靑雲而直上, 語時事則指而可想, 論懷抱則曠而且眞. 加以貞志不休, 安道苦節, 不以躬耕爲恥, 不以無財爲病.”
- 4) 淸, 沈德潛, 《設詩碎語》“(前略)……陶淵明自賦歸以來, 愛自然, 守丘壑娛詩酒, 忘貧賤, 能樂天而無怨. 慷慨之志, 時形于言. 蓋不徒飲酒, 詠荊軻諸詩, 則足以見其寄託, 每遇光風霽月之際, 寫沖淡閑遠之情, 卓然逸媚, 超絕鹿想, 爲古今隱逸之宗, 田園詩之祖, 誠當然之無愧也. 唐之王維·儲光羲·韋應物·柳宗元·白居易, 宋之王安石·蘇軾學焉而各得其性之所近云.”

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연으로 돌아갔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人生의 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으며 자신의 심신수양에도 극히 嚴正했다는 사실이다.

陶淵明의 偉大한 點은 그의 思想의 전부를 그의 作品 속에 融化시킨 점인데, 거기에는 共通의 生命과 靈魂이 결합되어 있어 餘他の 作家들의 경우와 같이 作品과 行爲가 분리되어 空間 속에서 虛僞와 造作이 發揮된 것과는 判異한 것이다. 그는 魏晉思想의 淨化者로 그의 哲學·文藝 및 그의 人生觀은 모두 浪漫的 自然主義의 最高 表現이었다. 그는 儒·道·佛等 諸家의 陋習을 除去, 精華를 拔萃 融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作品 中에는 諸家의 精義를 表現하여 一家의 獨占物로 하는 바는 아니었다. 여기에 바로 그의 思想의 背景의 豐富性과 作品의 偉大性이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그의 文學思想을 연구의 領域으로 삼았는데, 특히 그의 詩에 內在되어 있는 思想 中 儒家思想을 고찰함으로써 作家가 의도하고자 한 思想의 深層根源을 糾明하고자 한다.

2. 文學的 背景

世界의 文學思潮 中에서 中國만큼 非論理的이며 非系統的인 文學은 아마 드물 것이다. 周(BC 12)이전의 巫歌에서부터 春秋戰國 時代까지의 詩經·楚辭 및 各種 散文, 그리고 漢魏 六朝를 거치면서 派生한 賦·樂府詩·小說, 그 이후의 唐詩·宋詞·明清小說 등이 各 時代의 政治 社會的 與件에 따라 特性 있게 明滅하여 왔다. 이러한 思潮의 개성 속에서 낭만성을 특징있게 부각시킨 時代와 文人 및 作品을 고르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中國文學은 그 어느 작품 하나도 人間의 情感을 排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감있는 작품이 낭만성을 수반한다는 絕對性은 없으나 文學이 갖는 意識으로부터 中國文學에서의 情感은 他文學의 그것보다 더욱 文學의 基本이 되고 있다. 漢代는 儒家를 崇尚하던 時代요, 또 武帝 이후로는 그것이 盛하던 時代였다. 실로 漢代에 있어서는 모든 學術은 儒家과 直結되는 것으로 認識되었다. 그래

서 文學도 儒學과 더불어 發揚되었으며, 또 文學을 하자면 반드시 먼저 經典을 읽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로 내려 오면서 이와 같은 風潮는 처음으로 一新되어 文學思想에도 커다란 變化를 가져 왔다. 그 당시 사람들은 文學을 소위 道德으로부터 完全히 분리해 놓았다. 그러므로 胡雲翼은 그의 《中國文學史》에서

위진남북조 삼백여 년의 文學을 한마디로 포괄해서 이야기한다면, 곧 예술지상주의 文學시기라고 하겠다. 이 시기의 文學을 분석해서 말한다면 실로 두 가지 종류의 큰 특색이 있다. 그 첫째는 이 시기의 文學은 현실사회와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연과 접근함으로써 대단히 강렬한 隱世사상을 나타내고 있고, 둘째는 이 시기의 文學은 다시는 치용과 제도물 목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唯美주의로 기울어졌다⁵⁾

라고 위진남북조의 文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석은 그 當時의 文學思潮를 가장 잘 表現했다고 본다.

魏晉時의 詩文學은 처음 魏代 建安間(196~220)에 三祖陳王⁶⁾과 建安七子⁷⁾ 등 많은 才士들이 나와 建安的 文壇을 形成했으며, 正始間(240~248)에 이르러서는 宰相 司馬懿가 실권을 잡아 治國에 嚴刑이 過甚하자 國民은 恐怖에 떨고 社會의 秩序와 道德은 完全히 頹落되던 間 반면 現實을 否定하는 道家思想이 橫行되어 上流階級間에서는 清談이 盛行하였다. 이러한 社會思潮의 배경하에서는 文學의 健全성이 要求될 수 없었으며, 더구나 당시 문인들이 思想의 선도자가 되고 있었던 關係로 그 時朝의 文學에는 다른 때의 것보다 더 시대의 社會와 思想이 反映되고 있다. 正始間 및 西晉武帝의 卽位(265)時

5) 金學主·丁範鎮, 《中國文學史》, 同和出版公司, 1984, p.106. 再引: “魏晉南北朝(220~588) 三百多年的文學, 一言以蔽之, 是藝術至上主義的文學時期. 這個時期的文學, 分析起來說, 實有兩種絕大的特色: 第一, 這時期的文學不與現實的社會相接觸, 而接近自然, 表現很強烈的厭世思想. 第二, 這時期的文學不復以致用與載道爲目的, 而傾向形式的唯美主義.”

6) 齊, 沈約, <謝靈運傳論>: “至於建安, 曹氏其命, 三祖陳王咸, 蓋盛藻.”라 하였는데 三祖는 魏武帝 曹操·文帝 曹丕·明帝 曹叡이고, 陳王은 曹植이다.

7) 魏, 曹丕, 《典論》, <論文>: “今之文人, 魯國孔融, 廣陵陳琳, 滎陽王粲, 北海徐幹, 陳留阮瑀, 汝南應瑒, 東平劉楨, 斯七子者, 於學無所遺, 於辭無所假, 咸自騁駘於千里, 仰齊足而並馳.”라고 七子들의 文學을 높이 評價하였다.

頃까지의 文學界는 소위 竹林七賢⁸⁾에 의하여 代表된다. 이들의 詩文學은 한결같이 다 混濁한 현실사회를 忌避하고 階級的이고 拘束的인 儒學思想과 그 禮儀道德을 反對하여 超世的인 生活을 希求한 時代의 風潮를 代辯하고 있다.

이후 西晉의 太康(280~289)·元康(291~299)文學이라고 일컬어지는 時代가 펼쳐졌는데, 西晉一代間에서는 武帝의 太康年間時에 詩文學이 가장 盛하였다. 이 때에는 '三張·二陸·兩潘·一左'⁹⁾등이 詩文學界를 代表하였고, 詩壇에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西晉 太康時代의 일시적인 평온상태는 八王의 난으로 다시 혼란기에 빠지고 많은 시인들이 亂中에 피살되었다. 殘存한 王族은 江南으로 피난하여 建康에서 王朝를 復活시켜 東晉시대(317~420)를 연다.

太康 以後는 詩史上에서 永壽間(307~313)으로 계속되는데, 당시는 晉朝의 大亂時로서 詩人들은 國家의 不安을 描寫하여 그 詩는 憤激하고 悲痛하였으며 或은 逃世의 情을 읊어 그 詩는 玄虛하고 仙意가 있었으니, 前者의 代表는 劉琨이고 後者의 代表는 郭璞으로서 이들은 晉末의 左思와 더불어 三詩傑이라 칭한다. 郭璞 이후 陶淵明이 나올 때까지 詩壇은 적막하기만 했고 예술성이 별로 없는 玄言詩만이 유행했다. 이 시기의 詩風에 관하여 沈約은 “建武(317)부터 義熙(405~418)에 이르기까지 근 백년 동안에 詩文의 創作은 파도나 구름같이 많았지만 老莊의 思想을 말하고 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러한 玄虛의 詩風은 東晉詩壇을 風靡하여 날로 模倣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시의 詩壇은 一路 沈滯하였다. 玄言詩의 作家로는 孫綽·許詢·殷仲文·謝混 등이 있으나 이들의 作品은 별로 전하는 것이 없다.

東晉은 333年 북방을 統一하고 南下하던 前秦 苻堅을 淝水에서 물리쳤지만, 統治者의 문란한 政治와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軍벌의 득세로 점차 붕괴되어 갔다. 마침내 軍벌의 맹주였던 劉裕가 東晉을 탈취하여 宋을 세운다. 혼란했던 東晉末부터 宋初에 걸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當時의 沈滯한 詩壇에 光彩를 發함으로써 詩文을 다시 意境과 情韻으로 回復시킨 사람이 바로

8) 南宋, 劉義慶, 《世說新語》, <任誕篇>: “陳留阮籍, 譙國嵇康, 河內山濤, 沛國劉伶, 陳留阮咸, 河內向秀, 琅邪王戎, 七人集於竹林之下, 肆意酣暢, 故世謂竹林七賢.”이라 하여 七賢의 名과 鄉里를 밝혔다.

9) “張載·張協·張亢, 陸機·陸雲, 潘岳·潘尼, 左思”

大詩人 陶淵明이다. 陶淵明은 華麗한 文體를 쓰지 않고 통속적인 詩語로 자연의 情趣를 소박하게 묘사한 대표적인 田園詩人이었다. 그는 田園을 素材로 自然의 幽玄한 신비세계를 詩로 나타냈으며, 자연과 합일된 物我一致의 경지를 詩로 昇華시켰다.

이 시기에 詩歌는 가중 重要한 文學糧食으로 되었다. 그 중에서도 五言詩가 중심이 되었으니, 五言詩는 이 시기에 完熟한 境地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詩經으로부터 이어온 四言詩는 衰退一路를 걸어 中國詩壇에서 그 중요성을 잃었다. 당시 形式主義·唯美主義의 文學思潮로 말미암아 시가의 形式은 점점 洗鍊되어 古體詩에서 近體詩로 발전해 갔으며 當代 律詩의 誕生을 위한 端緒가 되었다.

3. 儒家의 文學觀

동양의 지식인들은 전통적 大道를 스스로 체험하여 받들고 따르려 하였다. 그들은 사회에 道가 실천되면 벼슬에 나가서 충성을 다했고, 道가 실천되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나 隱逸했다. 곧,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道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孔子는 높은 학식과 덕성으로 충성을 바쳐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을 받아 줄 나라나 임금이 없었다. 바꿔 말하면, 천하에 道가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孔子는 나아가 일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 동양의 전통적 지식인들은 安貧樂道했다. 가난을 겁내지 않고 우주의 영원한 진리, 즉 天道에 安住하는 것이었다. 出世進退, 그것은 오직 도를 따라 했으며 名利와 더불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道를 지키고자 벼슬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은퇴의 슬기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벼슬에서 은퇴를 하면 반드시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풍물이 아름답고 閑靜하고, 그곳에는 속세의 번거로움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인간사회의 굴레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天道를 따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연에 묻혀 천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그 생활의 표본을 바로 陶淵明에게서 엿볼 수가 있다. 《周易》이나 《詩經》의 文學觀은 儒學的 文學觀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거니와, 儒家思想의 元宗인 孔子는 文學에 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를 經典에 나오는 대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¹⁰⁾ ‘文(文學)’에 대한 견해를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文’이란 ‘詩’ ‘詩書’ 혹은 ‘詩書禮樂’, ‘古之遺文’ 등의 뜻으로 쓰였다. 《論語》 <述而篇> 第二十四章에 “子以四教 文行忠信”이라 하였는데, 朱子の 註에는 “文者 詩書也”라 하였고, 邢昺의 疏에는 “文 謂先王之遺文”이라 하였다. 또한 《論語》 <雍也篇> 第二十五章의 “博學於文”을 朱子は “博文是道問學之事 於天下事物之理 皆欲其知也”라고 풀이하였고, 宋代 邢昺가 지은 《論語正義》에는 “博文者 詩書禮樂 興古紹新 傳之遺籍 是也”라 했으며, 清代 劉寶楠·劉恭冕의 《論語正義》에는 “文 爲詩書禮樂”라고 했다. 한편, 《論語》 <學而篇> 第六章의 “行有餘力 則以學文”은 “文 謂詩書文藝之文”이라 풀이하고, “文者 古之遺文”이라 했으며, “文 皆古人所遺. 古言遺文”이라고도 하였다. 이상에서 ‘文’은 ‘詩書’와 ‘詩書禮樂’, 또는 ‘詩書文藝之文’과 ‘古之(言)遺文’ 등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文’이란 ‘文化, 禮, 道·德·仁·藝’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論語》 <雍也篇> 第十六章에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라고 했는데, 註疏에는 ‘文·質’이란 禮制와 樂制의 한 원리를 말한 것으로 ‘文’이란 ‘文化’ 등의 뜻을 가지며, 殷은 質을, 周는 文을 숭상했다고 풀이하였다. 또한 劉寶楠은 《論語正義》에서 “禮有質有文 質者 本也 禮無本不立 無文不行”이라고 했다. 여기서 ‘文’이란 詩·書·禮·樂 등의 文章을 지칭해서 文化의 총체를 말하고 ‘質’이란 인간의 자질 혹은 성품을 가리켜서 義로써 대표되는 德을 말한다.¹¹⁾ ‘文’은 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孔門의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質’이란 남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가 꾸준히 닦음으로써만이 이루어질

10)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編, 《韓國文學의 思想的 研究(上)》, 太學社, 1981, pp.179 ~ 181. 參照

11) 《論語》, <十五, 衛靈公篇> 第17章 : “子曰君子, 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論語》 <子路篇> 第二十二章에 보면 “그 덕을 항상하지 않으면 혹 부끄러움에 이른다.(不恒其德 或承之羞)”는 《周易》 <恒卦> 九三爻의 爻辭를 인용하였다. 孔子는 이 占이야말로 점을 쳐볼 필요도 없이 명확한 것이라고 다시 단언하고 있다. 또 《論語》<雍也篇> 第二十五章에 나오는 “君子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에서는 ‘文’을 배움에 있어 禮로써 요약한다면 道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論語》 <述而篇> 第六章에서는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라 했는데, 여기서는 ‘道·德·仁·禮’를 並列시켜 상호 조화를 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章은 사람이 學問을 함에 있어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즉, 禮樂之文이고 射御書數之法인 ‘藝’만을 잘 한다 해도 문제가 있고, 仁과 德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며, 뜻이 道에 있어야 함을 역설한 말이다.

셋째로, ‘文’이란 ‘學科’ 또는 ‘經學’, ‘學問’의 뜻으로 말하였다. 《論語》 <先進篇> 第二章에 “文學 子遊 子夏”라 했는데, 이때의 ‘文學’이란 孔子門弟의 長技를 말한 것으로서 ‘學科’ 또는 ‘經學’의 뜻이 있다. 한편, 《論語》 <公冶長篇> 第十四章에는 “敏而好學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라고 했으니 여기서 ‘문’은 ‘학문’의 뜻이 된다.

이상의 三項을 종합해 보면, 孔子의 文觀은 ‘詩書禮樂·文化·道德仁藝·經學·學問’ 등 修己治人の 기본이 되는 德目에 해당되어, 文學은 곧 儒學의 실천이라는 文學의 敎訓의 效用的 文學論으로 접근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文’과 ‘質’, 즉 표현과 내용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함으로, 자연히 孔子가 말하는 ‘배움(學)¹²⁾이란 뜻 안에는 전승된 文化를 배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양면성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好學’이란 孔子가 가장 중시하던 자세로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말한 것인데, 노력하는 君子의 특성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하던 제자 顏淵(顏回)과 자신에게만 好學者라는 칭호를 허용하였다.¹³⁾

12) 《論語》의 全 二十篇 499章 中 ‘學’에 대해 주장했거나, 언급한 대목은 모두 41章으로 글자는 65回 나온다.

13) 《論語》, <公冶長篇> 第17章·27章은 孔子 자신이, <六·雍也篇> 第2章과 <十一·先進篇> 第16章은 顏回가 ‘好學’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4. 陶淵明의 儒家思想

魏晉南北朝 時代의 儒家思想은 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東漢代에 極盛했던 儒學이 兩晉社會의 混亂과 倫理의 墮落으로 말미암아 衰落되었고 民心은 極度로 疲弊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의 문인·학자들은 華艷한 詩賦·文藝만을 創作하는 등 文學은 唯美主義 思潮로 흐르게 되어 山水·自然의 景觀을 아름답게 描寫하려는 시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儒敎의 經學은 道·佛에 比하여 크게 弱화되긴 하였으나 中國의 傳統의인 正學으로서 思想의 根據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 道家는 老莊思想을 土臺로 종교적인 교리의 체계를 세웠고, 佛敎思想 역시 혼란한 사회의 틈을 타고 불경 번역 사업과 함께 크게 흥성되었다. 陶淵明의 일생동안 생활은 매우 複雜多難한 데다가 그는 佛敎와 玄學이 성행한 시대에 태어났기에 그의 思想도 佛敎와 老莊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陶淵明의 詩文을 읽어 보면 그의 思想은 形而上學의인 일면과 形而下學의 일면을 동시에 背定하고 있음을 본다. 즉 그의 文學思想에는 儒學의 人生觀과 그 위에 老莊의 宇宙思想을 崇尚 融攝한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本稿에서는 陶淵明의 儒家思想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修己治人’, ‘憂國忠節’, ‘安貧樂道’, ‘知己之人’으로 大別하여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1) 修己治人の 鍊磨

陶淵明은 청소년기에 閑靜한 성품에다 글공부와 음악으로 性情을 고상하게 닦았으니, 속세의 이득이나 가난조차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을 그의 詩를 통해 알 수 있다.

閒靜少言 不慕榮利
 好讀書 不求甚解
 每有會意 便欣然忘食 <卷六.五柳先生傳>
 한적하고 조용하며 말이 없으며
 영화나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다.
 책 읽기를 좋아하였으나
 지나치게 따지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언제나 뜻에 맞는 글을 대하면
 곧 기뻐하며 밥 먹는것도 잊었다.

小學琴書 偶愛閒靜
 開卷有得 便欣然忘食 <卷六.與子儼等疏>
 어려서 거문고와 글을 배우고
 우연히 한가함과 고요함을 좋아하였다.
 책을 펼쳐 얻은 바 있으면
 곧 기뻐하며 밥 먹는것도 잊었다.

라고 하여 그의 성품을 잘 나타내었고, 학문에 대한 타고난 탐구 기질은 바로 그에게 원대한 포부를 갖게 해 준 요인이 되었다.

衡門之下 有琴有書
 載彈載詠 爰得我娛 <卷二.答龐參軍 一章>
 허술한 대문에(隱者가 주거하는 곳에)
 거문고와 책이 있다.
 곧 타고 읊고
 이에 내 즐거움을 얻는다.

息交遊閒臥 坐起弄書琴 <卷二.和郭主簿 其一>
 속세와 교제 그만두고 한가로히 즐기며
 앉으나 일어서나 琴·書를 즐기도다.

弱齡寄事外 委懷在琴書 <卷三.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어려서부터 세속적 일 밖에 살면서
 오직 거문고와 책만을 사랑했노라.

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 <卷五.歸去來兮辭>

친척들과 정이 넘치는 얘기 주고 받으며
거문고나 책을 즐겨 우울함을 해소한다.

欣以素牘 和以七弦 <卷六.自祭文>
때묻지 않은 글 읽으며 즐기고
거문고 타며 화락하다.

琴·書를 가까이 하였던 점은 《宋書》 <隱逸傳>에도 보인다.¹⁴⁾ 이처럼 그는 속세와 교제를 끊은 채 가난하나마 《詩經》·《書經》 등의 儒學書를 배우고 익혔던 것 같다.

詩書敦宿好 林園無世情 <卷三.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口>
詩·書를 읽으며 성품을 돈독히 닦고
세속의 때가 없는 들에 살았거늘.

少年罕人事 遊好在六經 <卷三.飲酒 其十六>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림을 멀리 했고
오직 육경을 즐겨 배우고 익혔거늘.

詩書塞座外 日戾不違研 <卷四.詠貧士 其二>
詩·書는 座外에 가득하건만
해 기울음에 연마할 겨를이 없다.

라는 詩句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속에 어울리지 않으며 철저히 儒學의 敎育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儒學의 經典인 六經은, 곧 그에게 修己治人의 기틀을 마련해 준 원천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부친의 성격을 가리켜 물욕도 없고 벼슬살이를 한낱 風雲과 같이 여기며 得失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於皇仁考 淡焉虛止
寄跡風雲 冥茲溫喜 <卷一.命子 六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14) 《宋書》, <隱逸傳> : “潛不解音聲, 而畜素琴一張, 無絃, 每有酒適, 輒撫弄以寄其意.”

담담히 가슴을 여시었다.
살아 오신 자취를 풍운에 맡기시 듯
추호도 성내거나 기뻐함이 없으셨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陶淵明은 그의 아버지 성격을 좋게 이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도 靑少年 때부터 善行과 道를 지켜 나갈 것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그가 말한 바 있는

結髮念善事 儷俛六九年 <卷二.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
소년 시절부터 선한 일 생각하며
선내 해나 되었네.

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修己治人에 필요한 모든 德行과 인격의 함양을 위해 邪를 제거하고 善心을 고취하고자 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大學》 <明明德篇>을 보면 治國은 곧 修身이 根本이며 修身은 正心이 근본임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덕을 닦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¹⁶⁾ 라는 이야기는 修己治人의 근본을 이야기 한 것이다. 陶淵明은 수기치인을 자기 人生의 根幹으로 삼았으며, 특히 그의 시에 제시된 引用人物을 통해서 自己省察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引用된 人物과 內容을 살펴보면, 韓信의 感惠, 班彪의 止仁, 寧戚의 商歌, 陸機의 歎逝, 許由의 洗耳, 韓非의 說難, 子路의 慍見, 子貢의 能辨, 揚雄의 不肯言 등이 나타나 있다.

漢의 韓信이 젊어서 표랑할 때, 빨래하던 아낙이 그에게 밥을 주었다. 후에 한신은 재상이 되어 그 아낙을 찾아 천금을 주어 보답했다. 이 시는 고마움에 대해서 저승에서라도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陶淵明의 바른 심정이 나타나 있다.

15) 《大學》, <明明德篇> :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治國,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16) 上同 :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感子漂母惠¹⁷⁾ 愧我非韓才
 銜戢知何謝 冥報以相貽 <卷二.乞食>

班固의 <幽通賦>에 있으니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바른 법도를 남겼으며, 어진 인덕이 깃드는 집에 살았다”¹⁸⁾고 하였다. 이것은 父 班彪의 덕을 높인 말이다.¹⁹⁾ 陶淵明은 이를 빌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清廉하게 仁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聊且憑化遷 終反班生廬 <卷三.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衛나라의 寧戚은 齊나라 桓公 앞에서 商歌²⁰⁾를 잘 불러서 등용되었다. 商歌는 商調의 노래로 격렬한 감정이 흐른다. 이에 대해 陶淵明을 자기는 그러한 재간이 없음을 自認하고 있다. 걱정스럽고 힘겨운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내 고향의 오막살이에 다시 돌아와 ‘참살’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다.

商歌非吾事 依依在耦耕
 投冠旋舊墟 不爲好爵榮
 養真衡茅下 庶以善自名 <卷三.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口>

吳나라 陸機(字는 士衡)의 <歎逝賦>²¹⁾에 있듯이 “전에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면 언제나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싫어했거늘, 나이 50이 된 내가 어느덧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읊었다. 陶淵明은 허무하게 금새 지나가는 人生이니 가족과 화목하게 즐기고 어울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17) 漢, 司馬遷, <史記>, <淮陰侯傳> : “韓信釣於城下, 諸母漂, 有一母漂見信飢, 飯信. 信謂漂母曰.. ‘吾必有以重報母’, 母勞曰.. ‘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 漢五年正月, 信爲楚王, 召所從食漂母, 賜千金.”

18) 後漢, 班固, <幽通賦> : “終保己而胎, 則里止仁之所廬.”

19) <漢書敘傳> : “班彪與從兄嗣共遊學. 家有賜書, 揚子雲以下皆造門.”

20) <淮南子>, <主術訓> : “寧戚商歌車下, 桓公喟然而悟.”

21) 晉, 陸機, <歎逝賦> : “昔每聞長老, 追計平生, 同時親故, 或凋落已盡, 或僅有存者.”

昔聞長老言 掩耳每不喜
奈何五十年 忽已親此事 <卷四.雜詩 其六>

隱者 許由는 堯임금이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자 潁水(河南省에서 淮水로 흘러가는 강)북쪽 箕山으로 은퇴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고, 또 후에 堯임금이 그를 구주의 장으로 삼겠다고 하자 그런 말을 듣기조차 싫다하며 潁水의 강물로 귀를 씻었다고 한다. 陶淵明의 단호한 은퇴 思想과 실천의 높은 경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가서 벼슬하되, 도가 없으면 물러나 은퇴하라는 孔子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권한 것이다.

願言謫諸子 從我潁水濱 <卷二.示周續之·祖企·謝景夷三郎>

韓非는 時弊를 건지고자 하여 십여만 말의 巧行을 했는데도 그것이 도리어 재앙의 原因이 되었다. 枝辨, 즉 거역하는 변설은 생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을 불렀을 뿐이다. 슬프다, 韓生이여! 韓非는 자기가 지은 說難²²⁾에 의해 죽었다. 제 일로 제가 죽었다. 인정이 부족했던 탓이다.

巧行居災 枝辨召患
哀矣韓生 意死說難 (卷七.讀史述 七章 韓非)

閒居하는 것은 옛날 孔子가 陳·蔡 등에서 당했던 그 厄²³⁾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子路가 화를 내어 不滿을 토로했으니, 陶淵明의 이같은 閒居에도 화를 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다만 옛날의 賢者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삼을 뿐이다.

閒居非陳厄 竊有慍見言 <卷四.詠貧士 其二>

22) 韓非子의 篇名으로 유세는 어려우므로 먼저 제후의 뜻을 알고서 달랠을 비결로 하여야 한다는 요지를 적은 글이다.

23) <論語>, <十五.衛靈公篇>第1章: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 子路慍見曰君子亦有窮乎?”

賜(端木賜로 字는 子貢이다)는 공연히 原憲에게 병을 묻는 등 능변을 일삼은 것인데, 이것은 그의 겉모양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다. 陶淵明은 스스로 일해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얹아서 먹을 생각은 없었다.

賜也徒能辨²⁴⁾ 乃不見吾心 <卷四.詠貧士 其三>

漢의 학자 揚雄(字가 子雲)은 술을 받아 주는 사람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며 깨끗한 나날을 보냈다.²⁵⁾ 그러나 아무리 좋아하는 술을 받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방책을 묻는 사람에게는 굳게 입을 다물고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았다. 陶淵明은 자신의 침묵을 슬기로운 인자의 본분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子雲性嗜酒 家貧無有得
有時不肯言 豈不在伐國 <卷三.飲酒 其十八>

2) 憂國忠節의 精神

東晉은 江南에서 나라를 세운 후 여러 차례의 대외 전쟁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비록 북방에서 호족들 사이의 전쟁이 東晉에게 옛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 동진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여 전력으로 反攻하지 못했다. 당시 소수의 안정된 사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中原 回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다. 즉 누가 먼저 오랑캐를 축출하든 먼저 하는 사람이 '稱帝의 資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러한 思想은 東晉 중·말기에 더욱 현저하였다. 그러므로 일부의 야심가들은 모두 北伐로 공을 세우려 하고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려고 하였다. 이처럼 陶淵明의 靑少年期는 東晉이 불안한 시기였다. 이 때

24) 《史記》, <仲尼弟子列傳> : “子貢利口巧辭, 孔子常黜其辯.”

25) 《漢書》, <揚雄傳> : “雄字子雲, 蜀郡成都人. 家素貧嗜酒, 人希至其門. 時有好事者, 載酒肴從遊學.”

의 그는 熱血青年으로 中原回復의 猛志를 불사르며 많은 충신영웅을 숭배하였는데, 그의 詩를 보면 胸中에 웅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壯志를 실현하고자 했다.

少時壯且厲 撫劍獨行遊
誰言行遊近 張掖至幽州
飢食首陽薇 渴飲易水流 <卷四.擬古 其八>

젊어서는 意氣 壯厲하여
칼을 차고 혼자서 행유를 나섰다.
누 말할까 行遊 가깝다고
장액에서 유주에까지 이르렀노라.
배고프면 首陽山의 고비를 뜯어서 먹고
목이 마르면 易水의 물을 마시었다.

憶我少壯時 無樂自欣豫
猛志逸四海 騫翮思遠翥 <卷四.雜詩 其五>

돌이켜 보건대 내 젊었을 때는
즐거움이 없어도 스스로 기쁜 것이 있었다.
세찬 뜻은 천하로 奔逸하려 했고
날개를 펴고 멀리 날고자 했다.

위 詩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靑少年期에 얻은 憂國忠節의 壯志는 그의 생활 신념이며 개성을 형성하는 본질이 되었다고 하겠다.

陶淵明이 살던 시대는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언어가 제 값을 다 할 수 없는 불의와 폭력의 불행한 시대였다. 특히 陶淵明의 曾祖父는 長沙郡公으로 晉의 帝相이 되어 晉에 忠誠을 다한 집안이었는데, 晉朝가 망하자 宋의 年號를 作品에서 쓰지 않고 甲子를 이용했다는 점과 그 후로 다시는 벼슬길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憂國精神을 엿볼 수 있다.

秦나라의 穆公도 많은 군사의 힘만을 믿어 自己만은 旅力이 충분하다고 해왔으나 그것도 마침내는 헛되었다. 窮도 通도 운명으로 하기에는 생각할 것도 없을지 모르나, 초췌하여 자꾸만 변해가는 陶淵明은 자신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든다. 그 깊은 생각이란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어찌 慨然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瀾哉秦穆談 旅力豈未愆
撫已有深懷 履運增慨然 <卷二.歲暮和張常侍>

伯夷·叔齊는 兄弟이며, 殷 孤竹君의 二子였다. 父가 卒하자 형제는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君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周武王이 紂를 쳐서 殷나라를 平定하고 周가 서자 수양산에 들어갔다. 周나라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고사리를 캐 먹으며 절개를 지키다 마침내 굶어 죽었다.

積善云有報 夷叔在西山
善惡苟不應 何事立空言 <卷三.飲酒 其二>
착하면 하늘이 복 내린다 했거늘
伯夷 叔齊는 수양산에서 굶주렸노라.
선과 악이 제대로 응보되지 않거늘
어찌서 공연한 말만을 내세웠는가.

二子讓國 相將海隅
天人革命 絕景窮居
采薇高歌 慨想黃虞 <卷七.讀史述 一章 夷齊>
二子是 나라를 사양하고
서로 거느려 海隅에 갔다.
天人은 命을 고치고
絕景에 窮居하였다.
고사리를 따며 高歌하고
黃虞 慨想하였다.

라 하여 陶淵明은 이 詩에서 君子는 固窮이라는 節介 속에 永住하며 선비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한다고 전하려 했다. 晉에서 살아온 그는 宋나라, 즉 劉裕의 새 體制를 깨끗한 志操로서 二君不死의 忠節과 知識人으로서 당시의 부패한 사회를 저주하고 통탄했다.

重離照南陸 鳴鳥聲相聞
秋草雖未黃 融風久已分

素磔晶修渚 南嶽無餘雲
 豫章抗高門 重華固靈墳
 流淚抱中歎 傾耳聽司晨
 神州獻嘉粟 西靈爲我馴
 諸梁董師旅 芊勝喪其身
 山陽歸下國 成名猶不動
 卜生善斯牧 安樂不爲君
 平王去舊京 峽中納遺薰
 雙陵亓云育 三趾顯奇文
 王子愛清吹 日中翔河汾
 朱公練九齒 閒居離世紛
 峨峨西嶺內 偃息常所親
 天容自永固 彭殤非等倫 <卷三.述酒>

태양이 남쪽 땅을 비추니
 우는 새 소리 서로 들린다.
 가을 풀은 비록 누렇지 못하나[시들지 않았는데]
 和風은 그치지 오래 되었다.

(南朝의) 낮은 脩渚[江陵]에는 흰 자갈 밝게 나타나고
 높은 곳의 南嶽에는 구름조차 없다.

劉裕는 豫章郡公의 높은 문에 올랐고
 恭帝(重華)는 南朝宋에 禪讓하니 불쌍한 무덤이라.

(나는) 눈물만이 흘러 탄식만 하게 될 뿐
 (잠 못 이루고) 귀를 기울여 새벽 닭의 소리를 듣는다.

신주에서 가축을 바치는 자가 있어
 恭帝(西靈)가 劉裕에게 준 것을 裕는 禪讓이라 했네

(楚 葉公) 沈諸梁이 군대를 일으키니
 (白公) 미승은 그 몸을 잃었다.

(漢獻帝는 曹丕에 굴복해) 산양공으로 봉해져 下國이 되고
 (恭帝는) 成名[靈陵王이란 이름]뿐 오히려 힘쓰지 못했다.

(孔子의 제자) 卜生[卜子夏]는 (魏의) 文侯斯를 좋다 하고
 (蜀後主 禪은) 安樂公이 되었으나 임금이 되지 못했다.

周平王은 옛 서울[西都]을 떠났고
 峽中[洛陽]에는 유혼을 드리었다.

(겨우 남은) 쌍릉[武帝·惠帝의 두릉]을 비로소 기르고

(魏曹가 受禪한 祥兆인) 三趾鳥는 奇文(左太沖의 魏都賦)에 나타났다.

周靈王子 擘은 (仙을 배워) 피리부는 것을 즐기고
 학을 타고 대낮에 擘 땅 河汾을 난다.

(越句踐의 臣) 陶朱公은 9년간 (仙丹을) 단련하고
 (나는) 한가하게 살고자 세상의 어지러운 온갖 일을 떠났다.
 높고 험한 西嶺의 안 (핀은 망해 恭帝 묻혔으니)
 (恭帝께서) 편안하게 쉬시는 곳 늘 친하는 바이다.
 천자의 용모 (그리는 魂) 스스로 (千秋萬歲) 永固하니
 彭殤, 즉 長壽한 彭祖와 短命한 이는 같은 類가 아니로다.

이 시는 <述酒>라는 篇名을 가졌으나 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이 모두 隱語로 되어 있어 좀처럼 무엇을 말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陶淵明은 이런 식으로 말을 우회하여 당시의 무서운 壓制者들의 눈을 피하려고 한 것 같다. 이 시는 잔인한 폭력이 나라를 멋대로 짓이겨 버리는 것을 보고 忠憤의 나머지 지은 시이다. 平者들은 흔히 이 시를 屈原의 詩 <遠遊>와 곧잘 비기는데, 참으로 이 시야말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막힌 憂國의 情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²⁶⁾

이 시는 陶淵明의 조국을 잃은 비탄의 감정이 體得된 忠憤之意가 있으니, 후세 亂臣賊子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은밀하게 쓴 작품이다. 그가 자신의 조국 東晉을 얼마나 사랑했고, 역적 무리의 안하무인적 행위에 분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다.

西晉 永嘉時期에 八王의 난으로 외족의 침입을 자초했고, 5胡 16國 때문에 中原이 크게 어지러워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이 때 南京縣 태수였던 司馬睿는 江南으로 피신, 재난을 피하여 온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옹립 되면서 晉은 다시 중흥되었다. 강남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司馬氏를 중심으로 고향도 잊고 당분간 평안한 생활을 했으나,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士族과 軍閥의 계속된 반란이 있었다. 첫번째 반란은 王敦에 의해 일어났다. 그는 宰相 王導의 從兄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반역을 피하므로 왕도는 대의를 위해서는 滅親도 불사한다고 하면서 왕돈을 물리쳤다. 두번째 반란은 權臣 蘇峻이 일으켰는데, 그는 야심을 품고 역모를 꾀했으나 陶淵明의 증조 陶侃등에 의해 誅殺 되었다. 세번째는 將師 桓溫이 정권을 잡아 專橫했으며, 네번째는 桓溫의 아들 桓玄이 아버지보다 더 전횡을 일삼으며 정권 찬탈을 꾀하다 결국 주살되었다.

26) 黃仲崙編著, <陶淵明作品研究>, 帕米爾書店, 民國 六十四年, pp.227~228.

그런 후, 劉裕가 간교한 계책으로 역적 모의하여 마침내 동진을 멸망시켰다. 인품은 유순하나 결단성이 부족했던 安帝와 恭帝는 당시 정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유유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으니, 왕실의 허약함을 면할 수 없었다.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유는 元熙 2年 6월에 恭帝를 폐하여 零陵王으로 삼고는, 자신은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禪讓한 遺風을 따른다고 史記를 조작했다. 더 자세히 말하면, 安帝 때 鞏縣 사람이 이상한 벼이삭을 헌상했는데, 이것을 安帝는 유유에게 준 사실이 있었다. 유유는 이를 이용하여 禪位받은 글에 四靈이 상서를 나타냈다고 하면서 四靈을 위해 태산과 汾水에 제사까지 지냈다. 이 작품의 제목을 <述酒>라 한 것은 湯注에 “황정견이 이르되 ‘述酒’ 1편으로는 대략 이 편에서 부족하고, 흡사 이는 다른 책에 지어진 것을 읽는 듯 하니 그 중에는 이해하지 못할 데가 많다.晋나라 元熙 2年 6월에 劉裕는 恭帝를 폐위하고 零陵王으로 삼았으며, 다음 해 독주한 단지를 張偉에게 주어 왕을 독살하려 했는데 偉가 스스로 먹고 죽었다. 이어서 또 병사들을 시켜 담을 넘어가 약을 올렸으나 왕이 마시지 않자 드디어 불시에 습격해 죽었으니, (따라서) 이 詩가 지어진 바 述酒라는 名篇이 된 까닭이다. 詩의 언사는 은밀한 어구로 다 했으니, 그런 고로 보는 자는 살피지 못했고, 오직 韓子蒼이 山陽公으로 下國 신세가 된 一語가 의혹으로 이것은 義熙 후에 느낀 바 있어 시가를 지었다는 구절을 내가 뒤집어서 상세히 검토하여 보았다. 그래서 후에 알게 되었는데 바 틀림없이 零陵公을 애도한 시이다.”²⁷⁾를 살펴보면 이 글을 지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이 작품은 劉裕가 安帝·恭帝를 몰아내고 晋을 멸망시킨 과정을 그렸고, 유유의 불의한 행동을 예전의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여 암시적으로 비유했다. 陶淵明은 위에서 조국 晋의 망함을 슬퍼하는 자신의 감정과 처지를 격양된 忠憤의 감정으로 드러내고 있다.

陶淵明과 憂國精神과 관련된 作品에 引用된 人物과 內容을 보면 荊軻의 義俠, 漸離의 慷慨, 勾踐의 義憤, 箕子의 感慨, 張長公의 蕭然, 三良의 殖主, 田疇의 節義 등이 나타나 있다.

戰國時代 俠客인 齊人 荊軻를 衛人들은 慶卿, 燕國人들은 荊卿이라 불렀다.

27) 朴善楨, 《估畢竇金宗直文學世界》, 二友出版社, 1988, pp.102~110. 參照.

그는 燕나라 태자 丹의 청탁을 받아 秦王(後에 秦始皇)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도리어 처참하게 진나라 대궐 안에서 죽었다. 수없이 정변을 거듭하는 亂世에 언제나 이기는 힘은 惡德이었다. 이에 陶淵明은 惡을 미워하고 善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다. 비록 실패는 했으나 폭군 진시황을 일찌기 없애고자 나섰던 정의의 장사 荊軻를 높이, 그와 같은 正義漢이 나와서 어지러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취 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燕丹善良士 志在報強嬴
招集百夫良 歲暮得荊軻 <卷四.詠荊軻>

高漸離는 형가의 벗으로 일찍부터 의기가 투합한 사람이었다. 易水 강가에서 형가를 작별하는 잔치를 벌인 장소에서 비참하게 筑[거문고 비슷한 대로 만든 악기]을 연주했으며²⁸⁾ 宋意는 형가를 전송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음악이 웅장한 羽調로 연주되자 장사들의 가슴 속이 더욱 용맹하게 뛰고 설레인다. 후에 高漸離는 진시황 앞에서 筑을 연주하다가 악기에 숨겼던 납덩이를 던져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역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漸離擊悲筑 宋意唱高聲
商音更流涕 羽奏壯士驚 <卷四.詠荊軻>

“魯나라의 句踐이 荊軻가 秦王을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말했다. 아깝도다! 갈숨씨 익히지 못한 일이!”²⁹⁾

惜哉劍術疎 奇功遂不成 <卷四.詠荊軻>

箕子는 殷나라 紂王의 숙부로 은나라가 멸망한 후 기자 조선의 시조가 되었다. 기자는 微子·此干과 더불어 은나라 三仁이다. 殷의 太師 箕子는 殷나라가 周나라에 망하자 周臣이 되지 않으면 鄉土를 떠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떠남에 있어 感慨가 깊어 걸음은 遲遲하니 걸리지 않는다.

28) 《淮南子》, <秦族訓> : “高漸離·宋意, 爲擊筑而歌于易水之上.”

29) 《史記》, <刺客列傳> : “魯句踐聞之曰..‘嗟乎惜哉! 其不講於劍刺之術也.’ 事在秦始皇二十年.”

去鄉之感 猶有遲遲

哀哀箕子 云胡能夷 <卷七.讀史術 二章 箕子>

張長公은 漢文帝 때 廷尉 張釋之의 아들이다. 官은 大夫에 이르렀으나, 면직되자 능히 당시의 세속적인 거슬 취하여 허용치 않았으므로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悠遠한 그는 蕭然할 뿐으로 榮達을 바라지 않는다. 世路는 多端하나 모두 나와는 다른 것 뿐이다. 晉에서 살아온 陶淵明이 宋나라, 즉 劉裕의 새 體制를 곳곳한 志操로서 二君不事의 忠節과 知識人으로서 당시의 부패한 사회를 저주하고 통탄했다.

遠哉長公 蕭然何事 <卷七.讀史述 九章 張長公>

<詠三良>은 春秋時代 秦나라 大夫子 車氏의 세 아들, 즉 奄息·仲行·鍼虎의 세 사람을 슬퍼한 시다. 모두 秦의 善한 선비다. 三良의 충정은 밖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런 충정을 민망히 여기지 않고 임금은 오히려 제 것으로 하기에 이른 것이다. 秦穆公이 죽었을 때에는 그 箴規와도 같이 세 사람이 모두 殉節하지(殉葬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들은 計議할 때에 서로 어기는 것이 없었다.

箴規嚮已後 計義初無虧
一朝長逝後 願言同此歸 <卷四.詠三良>

陶朱公의 二句, 이 말은 몸소 덕을 닦고 한가로히 거처하기 위해서 세상의 난리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魏나라 田疇의 字는 子泰로, 右北平無終(지금의 河北省 薊縣)人이다. 독서를 즐기고 검술에 능하였다. 田疇는 위험을 무릅쓰고 敵陣 속에 뛰어 들었다. “董卓이 장안에서 帝位에 오르자, 幽州牧使 劉虞가 탄식하여 가로되 .. 이제 사명을 받아들여 신하의 절개로 힘을 쓰고자 하는데 어찌하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선비를 구할 수 있겠소? 여럿이 모두 의논하여 가로되 田疇라 했다. 田疇는 이내 예를 갖추어 청하니 더불어 서로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미 길을 택했으니 전주는 이내 다시 西關 국경을 넘어서 나아가, 北山 곁으로 곧장 북쪽으로 달려 한적한 길을 쫓아 드디어 장안에 이르러 身命을 다했다. 조서로써 騎兵都尉 벼슬을 내리니, 전주는 고사하고 받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그 義를 높이 사 三府와 또 제후로 불렀으나 다 나아가지 않았다. 西關, 곧 庸關에서 살았다.”³⁰⁾ 또 그는 宗族과 따르는 자 백성 오백여 가구를 거느리고 徐無山에 들어가 학교를 일으켜 세울 것을 약속하고 窮耕하며 친히 돌보았다. 백성들은 화합하였으니 그의 위신에 복종하였던 것이다. 자기가 받은 使命을 다한 그 외는 무욕한 그야말로 節義 超絶, 士의 雄이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죽은지 오래다. 그러나 그 뛰어난 節義의 風은 鄉里, 즉 無終縣 사람들 모두가 배우고 있는 바이다.

聞有田子泰	節義爲士雄
斯人久已死	鄉里習其風
生有高世名	旣沒傳無窮 <卷四.擬古 其二>

이 고결한 절의의 풍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영달이나 편안만을 꾀하는 부류들은 설령 그들이 功名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공명은 기껏 백년 동안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田疇와 같이 節義의 美德을 千秋에 결코 전할 수 없다고 陶淵明은 이 詩에서 밝히고 있다.

3) 安貧樂道の 體驗

‘安貧樂道’觀은 소극적으로 보는 修身持分하는 경지요,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矜持 속에서 도를 즐기는 경지를 뜻한다. 이 價値觀은 같은 儒學的 觀點이라도 實學的 經世濟民의 관점에서 보면 安貧樂道觀은 소극적 人生觀이 되

30) 《三國志魏志》, <田疇傳> : “田疇字子泰, 右北平無終人. 爲人豪義, 有俠氣而節義, 亦可風… …今欲奉使展效臣節, 安得不辱命之士乎? 衆咸議曰 .. 田疇. …… 遂至長安致命. 詔拜騎都尉, 疇固辭不受. 朝廷高其義, 三府並辟, 皆不就. 西關即居庸關.”

고, 道文의 儒學觀에서 볼 때에는 求道者의 적극적인 樂道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老莊思想의 逃避的 樂山樂水는 아니다.

본시 '安貧樂道'라는 말은 《論語》〈學而篇〉第十五章에 나온다. 孔子는 "貧而無諂 富而無驕"라고 묻은 子貢의 말에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 하며, 부하면서도 禮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安貧觀과 樂道觀은 그대로 儒學思想으로 굳혀져서 知行을 지침하는 말로 되었다.

安貧樂道와 有關한 文句는 《論語》에 많이 보이니³¹⁾ 〈述而篇〉第十五章의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자더라도 즐거움이 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義가 아닌 부귀는 나에게서 뜯 구름과 같은 것이다."³²⁾라는 文句가 가장 적절하다. 비록 보리밥에 벼개 대신 팔을 베어도 樂이 그 속에 있는 悠悠自適한 생활, 이것이 安貧樂道觀이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도를 잃는 것이 가장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孔子는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함이 없기는 쉽다."³³⁾라고 하였다. "顏回는 근사했으나 자주 끼니를 굶었다."³⁴⁾그러나 顏回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으로 누추한 골목에 있는 것을, 남들은 그 근심을 견대하지 못하지만 顏回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였다.³⁵⁾ 《論語》全篇에 보면 孔子가 顏回보다 더 칭찬한 제자는 없으니, 顏回는 호학도 했지만 安貧樂道를 실천한 모범인이었기 때문이다.

31) 《論語》, 〈一學而篇〉第14章: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論語》, 〈四里仁篇〉第9章: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論語》, 〈九子罕篇〉第26章: "衣敝緇袍, 與衣狐貉者, 立而下恥者, 其由也與."

《論語》, 〈十五衛靈公篇〉第31章: "君子, 謨道, 不謨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 憂道, 不憂道."

32) 《論語》, 〈七述而篇〉第15章: "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33) 《論語》, 〈十四憲問篇〉第11章: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34) 《論語》, 〈十一先進篇〉第18章: "回也, 其庶乎, 饜空."

35) 《論語》, 〈六雍也篇〉第9章: "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1) 古窮節操

‘固窮’이라는 말은 원래 《論語》〈衛靈公篇〉第一章에 나오는 말로 “君子는 진실로 궁한 것이니, 소인이 궁하면 그릇된 일이라도 하게 된다.”³⁶⁾에서緣由된 것이다. 陶淵明은 孔子의 이 固窮의 정신을 받아 그의 일생동안 최고의 신조로 삼았다. ‘固窮’이란 두 글자는 말로는 아마 쉬울지 모르나 실행하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어서 보통 인간의 意志力을 초월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屢空既有人 春興豈有免 <卷三.癸卯歲始春懷古田舍 其一>
 루공은 이미 사람(顏回) 있으니
 나도 봄철 따라 발을 갈겠노라.

顏生稱爲仁……屢空不獲年 <卷三.飲酒 其十一>
 顏回는 인덕으로 이름이 높았고……
 자주 뒤주가 비었으며 일찍 죽었고

回也早夭 <卷七.讀史述 五章 七十二第子>
 回는 일찍 夭死하고

陶淵明은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했으나 이와 같이 固窮節을 지켰던 顏回를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으니, 시를 통해 顏回의 가난을 자신의 처지에 비교함으로써 自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에 ‘固窮’이 5회 나온다. (感士不遇賦 제외)

高操非所攀 謬得固窮節 <卷三.癸卯歲十二月中作與從弟敬遠>
 높은 지조야 좇아 오를 수 없으나
 어지러이 고궁의 절을 터득했노라.

不賴固窮節 百世當誰傳 <卷三.飲酒 其二>
 선비된 몸 고궁의 절개 아니고서
 영원한 후세에 어찌 이름 전하리오.

36) 《論語》, <十五.衛靈公篇>第1章: “君子, 固窮, 小人, 窮斯濫矣.”

竟抱固窮節 饑寒飽所更 <卷三.飲酒 其十六>
 결국 고궁한 절개 지닌 채
 심도록 굶주림과 추위만을 겪었노라.

斯濫豈攸志 固窮夙所歸 <卷三.有會而作>
 그릇된 일은 어찌 뜻하는 바일까
 고궁 일찍 허락한 바이다.

誰云固窮難 邈哉此前修 <卷四.詠貧士 其七>
 누가 이르는데 고궁은 어렵다고
 멀도다, 이 옛날의 현인에게는.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넉넉하되 교만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라는 貨殖³⁷⁾의 才가 있는 子貢의 물음에 대하여, 孔子는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넉넉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고”³⁸⁾ 積極의인 樂道와 好禮의 姿勢로써 응답하고 있다.

子貢의 小乘의인 貧富觀에 대하여 貧困 속의 積極의인 측면 곧 樂道好禮는 顏淵에게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고차원의 경지인지도 모른다. 孔子는 回야 말로 대(竹)로 만든 한 사발의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도 樂道의 즐거움을 끝내 버릴 줄 몰랐던 賢者라고 讚嘆해 마지 않았다.³⁹⁾ 이러한 回의 선비다운 生活이 바로 형편이 없는 밥에 맹물을 마시며 팔베개로 잠자는 限이 있더라도 樂道의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 孔子의 그것을 닮다 못하여 앞지르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不義로 얻은 부귀 따위는 비단 孔子 자신에게 뿐 아니라 안연에게 있어서도 이합 집산이 무상한 浮雲과 같이 터무니 없고 緣도 먼 것이었으리라.⁴⁰⁾

此事眞復樂 聊用忘華簪

37) 《論語》, <十一.先進篇>第18章: “賜, 不受命而貨殖焉, 億則屢中.”

38) 《論語》, <一.學而篇>第15章: “子貢曰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39) 《論語》, <六.雍也篇>第19章

40) 《論語》, <七.述而篇>第15章

遙遙望白雲 懷古一何深 <卷二.和郭主簿 其一>

이 모든 일 진정 또한 즐거우니
 풀가분히 벼슬 부귀 잊어버리자.
 하늘 높이 유유히 흰 구름 보니
 가슴 깊이 옛 사람들 그리울구나.

怒如亞九飯 當暑厭寒衣 <卷三.有會而作>

나의 굶주림 구반을 잇는 것과 같고
 더위를 당하여도 한의에 싫어진다.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

辛勤無此比 常有好容顏 <卷四.擬古 其五>

삼순에 아홉 번 식사를 하고
 10년에 하나의 관을 쓴다.
 勞苦 이에 견줄 것 없으나
 언제나 좋은 얼굴을 한다.

固窮과 관련된 작품에 인용된 人物과 內容을 보면, 顏回의 屢空, 榮啓期的 帶索, 子思의 容顏과 決履, 公孫弘의 高操, 蒙袂의 飢乏, 孟筍의 介, 黔婁의 守賤, 張仲蔚의 窮居, 黃子廉의 清貧, 楊倫의 高風, 張擘의 壯節, 張衡의 縱心, 召平的 種瓜, 四皓의 隱遁, 伍與·聲子の 班荊 등 飢乏이나 窮寒, 榮達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을 敬慕하고 있다. 가난에도 추위에도 잘못을 범하지 않고 벼슬조차 내 榮華로 하지 않은 것은 그들 古人의 뜻이었다. '固窮'은 陶淵明이 일찍부터 의지해 온 바이다. 즉 굶주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며, 예부터 이 점 그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魯나라 顏回(顏生)는 孔子의 수제자로 字는 子淵이다. 顏子라 존칭한다. 덕행이 높았고 가난 속에서도 태연하게 도를 지켰다. 공자가 “顏回는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여,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⁴¹⁾고 칭찬하였다. 항상 뒤주가 비어도 흔들리지 않고 별 스스로 없이 지내며,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의 식사조차 자주 마련하지 못했으나 마음에 여유 있는 모양으로 安貧樂道했다. 顏回는 32歲로 일찍 죽었으며, 후세에 亞聖이라 일컬어진다. 재주가 있다고 하여 하늘은 장수를 주지는 않는다. 陶淵明은 顏

41) 《論語》, <六.雍也篇>第2章: “有顏回者好學,不遷勞,不貳過.”

회가 현실 생활에는 실패했으나 죽어 이름을 남겼음을 인정했고, 그러나 그러한 名聲도 결국은 作爲의인 인간 세상의 장난이라 여긴다. 顏回와 같이 의식에도 때때로 곤궁할망정 道에 있어서만은 그런데로 얻은 것같이 여겨온 세월이다. 옳은 이치, 진리에 따를 뿐이다.

- 屢空常晏如 <卷三.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屢空既有人 春興豈自免 <卷三.癸卯歲始春懷古田舍 其一>
 簞瓢謝屢設 <卷三.癸卯歲十二月中作與從弟敬遠>
 顏生稱爲仁 屢空不獲年 <卷三.飲酒 其十一>
 簞瓢屢空晏如也 <卷六.五柳先生傳>
 簞瓢屢罄 <卷六.自祭文>
 回也早夭 <卷七.讀史述 五章 七十二弟子>

鄆 땅의 榮啓期(榮叟,榮公)는 나이 90이 되어도 사슴 가죽을 입고 새끼로 띠를 대고서 혼연히 琴을 타면서 노래하고 곤궁한 생활을 즐겼다. 孔子가 그에게 즐거운 이유를 물었다. 그는 만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고, 남자가 될 수 있었고, 구십줄에 이른 것, 이것들 세 가지가 즐거움이라 답했다. 그리고 가난함이란 선비로서는 정상적인 것이고 죽음이란 인생의 끝인데 정상적인 처지에서 끝을 맞이하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야 하겠느냐고 한다. 孔子는 그를 스스로 관대해지려 하는 분이라고 극찬한다.⁴²⁾ “나는 한참 나이 장년기에 어찌 飢寒에 고통할까 보나.” 이것은 陶淵明이 隱士의 얘기를 빌어 인간의 貧富와 死生에 초연한 생활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 飢寒況當年 九十行帶索 <卷三.飲酒 其二>
 榮公言有道 長飢至於老 <卷三.飲酒 其十一>
 榮叟老帶索 欣然方彈琴 <卷四.詠貧士 其三>
 茫茫大塊 悠悠高旻
 是生萬物 餘得爲人 <卷六.自祭文>

42) 《列子》, <第一. 天瑞篇> : “孔子遊於太山, 見榮啓期行乎鄆之野, 鹿裘帶索, 鼓琴而歌……貧者, 士之常也. 死者, 人之終也. 處當得終, 當何憂哉? 孔子曰, 善乎! 能者寬者也.”

子思가 衛에 거주할 때 거친 옷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三旬에 九食했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참으로 입는 것 먹는 것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했다.⁴³⁾ 가난한 선비라한들 사람이다. 輕裘, 즉 貴人들이 입는 값진 가벼운 갖옷인들 어찌 싫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苟得은 바라지 않는다.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탐하지 않는다. 그런 苟得은 공경할 바가 못된다.⁴⁴⁾ 따라서 그辛苦는 비할 데가 없었다. 그렇건만 그 얼굴은 언제나 만족스러운 좋은 얼굴을 한다. 陶淵明의 굶주림 역시 이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의연하고자 했다.

怒如亞九飯	當署厭寒衣	
歲月將欲暮	如何辛苦悲	<卷三.有會而作>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	
辛勤無此比	常有好容顏	<卷四.擬古 其五>
豈忘襲輕裘	苟得非所欽	<卷四.詠貧士 其三>

原生은 (原憲을 가리킨다. 字는 子思 또는 原思이다.) 孔子의 제자로 그보다 36세 연하이다. 청빈한 사람으로 진한다. 해진 신을 신었으나 淸歌하며 金石의 소리를 화창해 가며 즐기었다. 《韓詩外傳》에 나온다. “원헌이 노나라에 거주할 때 자공이 그를 보러 갔다. 원헌이 찾아온 손을 응대하는데, 소매를 흔드니 팔꿈치가 보이고 신을 신었는데 발꿈치가 터져 나왔다. 자공이 이르되 ‘아, 선생은 어떤 병이요’, 헌이 이르되.. ‘헌이 가난하나 병은 아니오. 인의로 숨김이나 거마의 꾸밈은 헌이 참지 못하는 것이요.’ 자공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가버렸다. 헌은 이에 천천히 걸으며 지팡이를 끌고 商頌을 노래하면서 돌아오니, 소리가 천지에 잠겨서 마치 금석(의 음악)소리가 나는 듯했다.”⁴⁵⁾

43) 漢, 劉向, 《說苑》, <立節篇> : “子思居衛, 緼袍無表, 三旬九遇食.”

44) 《說苑》, <立節篇> : “田子方使人遺之狐白之裘. 子思不受, 曰.. 妾與不如遺棉溝壑, 役雖貧, 不忍以身爲溝壑, 是以不敢當也.”

45) 漢代 燕, 韓嬰, 《韓詩外傳》 : “原憲居魯, 子貢往見之. 原憲應門, 振襟則肘見, 納履則踵決. 子貢曰.. ‘嘻, 先生何病也?’ 憲曰.. 憲貧也, 非病也. 仁義之匿, 車馬之飾, 憲不忍爲也. 子貢慚不辭而去. 原憲乃徐步曳杖, 歌商頌而返, 聲淪於天下, 如出金石.”

原生約決履 清歌暢商音 <卷四.詠貧士 其三>

공자의 제자 曾參은魯나라 사람으로 字는 子輿이다. 존칭하여 曾子라 일컫는다. 부모에게 至孝하고 一日三省하여 도를 닦았다. 大學을 저술하고 孝經을 저작하였으며, 그 學을 子思에게 전하였다. 후세에 宗聖으로 모셨다. 曾子가 衛나라에 살았을 때 솜옷은 겹테기가 없고, 얼굴은 부어서 종기가 끓어 터졌으며, 손발은 트고 갈라져 있었다. 사흘 동안이나 불을 때지 못했고, 십년 동안에 옷 한 가지 만들어 입지 못했으며, 갓을 바로 쓰려 하면 갓끈이 끊어지고, 옷깃을 여미려 하면 팔꿈치가 나오며, 신을 신으려 하면 뒤꿈치가 터져 빠져 버리는 형편이었다. 발을 끌며 시경의 시를 노래하자 그 소리는 천지에 가득 차서 마치 금석의 악기에서 나는 것만 같았다.⁴⁶⁾

弊襟不掩肘 藜藿常乏藟 <卷四.詠貧士 其三>

漢의 元朔中 公孫弘이 武帝를 도와 많은 공을 세우자, 조서를 내려 平津侯에 封했다. 陶淵明은 천 년, 옛 서적을 하나하나 보면서 때때로 先人들이 남긴 업적을 보기도 한다. 높은 지조는 따라올라갈 수가 없으나 고궁절만은 그도 깊어 터득했다. 漢나라의 공손홍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敬慕하려 하여도 도저히 경모를 다할 수가 없고, 도저히 뒤쫓을 수가 없다. 따라서, 뒤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衡門 아래 棲遲하며 拙을 지키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즉, 陶淵明의 뜻은 固窮 한 마디에 있다. 고궁의 節을 지키기 위해 은퇴하여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한 이외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 시를 통하여 武門의 桓玄이 稱帝를 한 당시의 슬픈 현실을 은연중 비난하고 있다.

歷覽千載書	時時見遺烈	
高操非所攀	謬得固窮節	
平津苟不由	棲遲詎爲拙	
寄意一言外	茲契誰能別	<卷三.癸卯歲十二月中作與從弟敬遠>

46) 《莊子》, <讓王>第二八·10 : “曾子居衛, 緇袍無表, 顏色腫噲, 手足胼胝, 三日不舉火, 十年不製衣, 正冠而纓絕, 捉襟而肘見, 納履而踵決, 曳縱歌商頌, 聲滿天下, 如出金石.”

陶淵明은 蒙袂같이 飢乏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을 敬慕하고 있다. 가난에도 넘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은 古人의 뜻이었다. “제나라에 대기근이 있자, 黔敖가 길에서 밥을 해서 허기져 기다리는 자에게 먹였다. 굶주리는 자에 몽메라는 이가 신을 모으고 눈이 흐릿한 채로 왔다. 검은 손에 먹을 것을 들고 오른손으로 마실 것을 집어서 말하길 ‘자, 와서 먹어라’했다. (그러자 몽메가)눈을 크게 뜨고 보며 말하길 ‘나만 오직 먹지 않아 와서 먹으라 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하고 좃아가 감사하다 하고, 끝내 먹지 않고 죽었다.⁴⁷⁾ 陶淵明은 스스로 가난을 甘守했으니 일찍 그의 心向이었다. 따라서 굶주림은 어쩔 수가 없으니 예부터 安貧守道한 그의 스승은 많았던 것이다.

常善粥者心
深念蒙袂非
嗟來何足吝
徒沒空自遺 <卷三.有會而作>

孟子와 荀子는 시대가 옳지 않다고 보면 시대와 調和하지 않고 그것을 주재하려고 했다. 陶淵明은 다른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미혹하지만, 이 두 儒者만은 그런 변화가 와도 결코 미혹하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介介하니 곧은 사람을, 특히 貞夫라고 한다.

介介古人 特爲貞夫 <卷七.讀史述 八章 魯二儒>

가난에 편안하고 천함을 지키는 자로, 예부터 春秋時代 齊의 隱士 黔婁처럼 人格이 높은 사람도 또 없다. 國相이라는 높은 벼슬조차 내 榮華로 하지 않았고 粟 30종의 후한 대접조차 내 賤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눈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죽은 뒤에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그의 시체는 누

47) 《禮記》, <檀弓篇> : “齊大飢, 黔敖爲食於路, 以待飢者而食之. 有餓者蒙袂輯履, 貿貿然來. 黔敖左奉食, 右執飲曰… ‘嗟來食’ 揚其目而視之曰… ‘予唯不食嗟來之食, 以至於斯也’ 從而謝焉, 終不食而死.”

더기가 걸쳐진 대로고, 또 그 위에 덮은 형겁조각도 짧아서 발도 가리지 못했다. 문상간 曾子가 형겁을 비스듬히 돌려서 손발을 덮으려고 하자, 검루의 부인이 말했다. “고인은 바른것(正)을 좋아했으므로 형겁을 모(斜)로 하는 것은 邪라 좋지 않다.” 그는 빈천을 겁내지 않았고 부귀도 바라지 않았다.⁴⁸⁾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생전에 조금도 근심이 없었다. 다른 것은 道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참으로 黔婁야말로 인간의 극도를 아는 達人이었다. 아래 시는 검루를 찬양한 것이다. 검루는 修身清節하며, 높은 벼슬조차 내 영화로 하지 않고, 후한 대접조차 내 값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陶淵明이 가장 敬服하는 사람이다.

安貧守賤者 自古有黔婁 <卷四.詠貧史 其四>
 黔婁有言 不戚戚於貧賤 不忻忻於富貴 <卷六.五柳先生傳>

後漢(東漢)의 張仲蔚(平陵人)은 窮居를 사랑한다. 세상의 榮達 같은 것을 생각지도 않고 혼자 窮하게 살고 있다.⁴⁹⁾ 집은 축이 멋대로 돌아나 잡초에 파묻혀 있다시피 되어 있다. 은연히 숨어서 교유를 끊고, 그러나 시를 짓기로 하면 그 시가 자못 능하다. 介然히 혼자 떨어져서 그 業에 만족하고, 窮도 즐기고 通도 즐기고, 그래서 운명이 열리는가 아니 열리는가 하는 따위와는 상관없는 것에 인생의 즐거움을 두고 살았다. 陶淵明은 이 서투른 사람의 편에 언제나 따르기로 한다. 여기서 陶淵明의 높은 人品을 推理할 수 있을 것이다.

仲蔚愛窮居 繞宅生蒿蓬

48) 漢, 劉向, 《列女傳》: “先生死, 曾子與門人往弔之……見先生之尸在牖下. 緇袍不表, 覆以布被. 手足不盡斂. 覆頭則足見. 覆足則頭見……其妻曰…斜而有餘不如正而不足也. 先生以不斜之故, 能至於此. 生時不斜, 死而邪之, 非先生意也……先生, 君嘗欲授之政, 以爲國相, 辭而不受, 是有餘 貴也. 君嘗賜之, 粟三十鍾, 辭而不受, 是有餘富也. 彼先生者, 甘天下之淡味, 安天下之卑位, 不戚 戚于貧賤, 不忻忻于富貴. 求仁得仁, 求義得義, 諡之曰康, 不亦宜乎.”

晉, 皇甫謐撰, 《高士傳》: “黔婁先生, 齊人也. 修身清節, 不求進於諸侯. 魯恭公聞其賢, 遣使致 禮賜粟三千鍾, 欲以爲相, 辭不受, 齊王又禮之, 以黃金百斤聘爲卿, 又不就.”

49) 《高士傳》: “……修道德, 隱身不仕, 明天官博物, 善屬文, 好詩賦. 常居窮素, 所處蓬蒿沒人, 閉門養性, 不治榮名. 時人莫識, 唯劉龔知之.”

翳然絕交遊 賦詩頗能工

介焉安其業 所樂非窮通 <卷四.詠貧史 其六>

東漢의 南陽太守 黃子廉은 廉潔한 선비로, 처음으로 出仕를 하여 名州의 佐가 되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뇌물 같은 것은 받아 본 적이 없고, 따라서 淸貧으로 말하면 그에게 짝할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陶淵明은 黃의 固窮한 淸貧을 높이 두둔하고 있다.

昔在黃子廉 彈冠佐名州
一朝辭吏歸 淸貧略難儔 <卷四.詠貧士 其七>

後漢의 학자 楊倫은 字가 仲理다. 郡文學掾을 지냈으나 뜻에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大澤에서 글을 가르쳤다. 제자가 천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후에 조정에서 세 번이나 불렀으나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⁵⁰⁾ 일단 물러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마땅히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답한 기풍이 확고하게 섰다.

仲理歸大澤 高風始在茲
一往便當已 何爲復狐疑 <卷三.飲酒 其十二>

前漢의 張攀는 字가 長公이며, 張釋之의 아들로 벼슬은 大夫였다. 그러나 세상과 맞지를 않아 물러난 후 終身토록 나가지 않았다.⁵¹⁾ 張長公이나 楊仲理는 한 번 출사했으나 자기와 뜻과 어긋남을 깨닫고 이내 은퇴하여 평생토록 俗世나 政治와 등을 지고 살았었다. 陶淵明은 이들을 높이 평가했고, 그들로 인해 고답한 隱士의 기풍을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고 격찬했다.

50) 《後漢書》, <儒林傳> : “後漢楊倫, 字仲理, 爲郡文學掾, 志乖于時, 遂去職, 不復應州郡命, 講授大澤中, 弟子至千餘人. 後特徵博士, 前後三徵, 皆以直諫不合, 既歸, 閉門講授, 自絕人事.”

51) 《史記》, <張釋之傳> : “釋之之子張攀, 字長公. 官至大夫, 免, 以不能取容當世, 終身不仕.”

長公會一仕 壯節忽失時
杜門不復出 終身與世辭 <卷三.飲酒 其十二>

張衡(78-139)은 漢나라 사람으로 字는 平子다. 과학자 겸 문학자로 당시 성행하던 도참설을 반대했다. 縱心, 즉 마음에 맡기다.<歸田賦>에 있으니, “일단 마음을 물질적 현상 밖에 놓게 되면 잘 살고 못사는 것도 알 바가 아닙니다.”⁵²⁾고 하였다. 陶淵明은 젊음이 길지 못하거늘 마음이 내킬 때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성한 세일인들, 이 성한 나이인들 앞으로 몇 해나 남아 있을 것인가. 마음을 멋대로 하여 어찌 주저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마음이 가는 데로 해야 할 것이다.대단치도 않은 벼슬을 어서 그만 두고 悠悠自適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靜念園林好 人間良可辭
當年詎有幾 縱心復何疑 <卷三.庚子歲五月中從都還阻風于規林 其二>

召生, 즉 召平은 秦나라 사람으로 東陵侯였다. 秦이 漢에게 敗亡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布衣를 입고 빈한하게 생활을 하며 長安城 밖 동쪽에서 오이를 심고 살았다.⁵³⁾ 衰榮, 즉 쇠하는 것도 번영하는 것도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서로가 함께 한 자라에 있다. 쇠하다가도 번영하고, 번영하다가도 쇠한다. 自然의 理致를 바탕으로 人間世의 깊은 도리를 터득한 陶淵明은 앞으로 다시는 망설이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衰榮無定在 彼此更共之
邵生瓜田中 寧似東陵時 <卷三.飲酒 其一>

秦末의 무도한 폭정을 피해 陝西省 商縣 동쪽에 있는 商山으로 몸을 숨긴 네 사람, 夏黃公·綺里季·東園公·角里先生들을 商山四皓라고 부른다. 그들은 깊은 골짜기 황무지에서 오랫동안 紫草를 뜯어먹고 살았으니, 貧賤은 상상하고

52) 漢, <歸田賦> : “苟縱心於物外, 焉知榮辱之所如.”

53) <史記>, <蕭何傳> : “邵平者, 故秦東陵侯. 秦破爲布衣貧. 種瓜長安城東, 瓜美, 故世謂東陵瓜.”

도 남음이 있다. 아마도 四皓 이외에는 이것을 뜯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深谷의 黃蕪, 그 오랜 은 상상되고도 남음이 있다. 부귀한 사람은 근심이 없으 수가 없다. 그것은 빈천한 사람이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빈천하기 때문에 맑게 노래 부르고, 그래서 그것으로 心曲을 맺는 즐거움이 있다. 陶淵明은 이들과 같이 貧賤했던 達士를 사모하여 오직 그들을 따르고자 했다. 사실 그는 시에서 자기의 평소의 생각들을 말하며 은근히 자기도 隱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路若經商山	爲我少躊躇	
多謝綺與角	精爽今何如	
紫芝誰復採	深谷久應蕪	
駟馬無賞患	貧賤有交娛	
清謠結心曲	人乖運見疏	<卷二.贈羊長史>
咄咄俗中愚	且當從黃綺	<卷三.飲酒 其六>
黃綺之商山	伊人亦云逝	<卷四.桃花源記>

友人이 있다. 내 취향을 알고 술병을 들고서 찾아온다. 그러면 곧 싸리자리를 깔아 소나무 아래 앉아서 父老와 술을 떠가며 잔을 기울인다. 陶淵明은 술을 좋아하지만 집이 가난하여 언제나 마실 수가 없었다. 대체로, 田野의 농부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하면 서로가 섞여서 허튼 소리를 한다. 잔을 주고받는 데 行次를 잃고, 그런가 하면 나 있음을 아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悠悠하니 술을 기울이며 멈출 줄을 모른다. 安貧樂道하는 酒中에는 참으로 깊은 맛이 있다. “楚의 伍舉가 핏으로 도망가려고 할 무렵, 그의 친한 벗 鬻子를 진나라 교외에서 만나 둘이서 땅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함께 먹었다.”⁵⁴⁾고 <左傳>에 나온다.

故人賞我趣	翠壺相與至	
班荆坐松下	數斟已復醉	
父老雜亂言	觴酌失行次	
不覺知有我	安知物爲貴	<卷三.飲酒 其十四>

54) 魯, 左丘明, 《春秋左氏傳》: “楚人伍舉與鬻子相善, 伍舉將奔晉, 鬻子遇於晉郊, 班荆相與食.”

그의 詩 <有會而作>에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뜻한 바리오. 진실로 궁핍은 평소 따르는 바다. 배고프면 그만일 뿐이니, 옛날에는 나의 많은 스승이 있었음이라”⁵⁵⁾고 하여 ‘固窮’이 그의 절대적인 信條임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歸去來兮辭>, <五柳先生傳>, <自祭文>을 보면 그의 이러한 사상이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남쪽 창에 기대고 의기양양해 하니, 무릎을 들일 정도의 좁은 집이지만 편안한 곳임을 알겠네. …… 부귀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요, 천국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⁵⁶⁾

선생의 좁은 집은 텅 비어 쓸쓸했으며, 또 바람이나 햇볕도 제대로 막고 가릴 수 없을 만큼 허술했다. 선생은 짧고 거친 벼옷을 더덕더덕 기워 입고 있었으며, 밥그릇이나 표주박조차 자주 비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태연하게 지냈다. 노상 시나 글을 지어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오직 자기의 뜻을 표현했을 뿐, 득실 같은 것은 관심에 두지 않았다. 선생은 그러한 태도로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쳤다.⁵⁷⁾

사람으로 태어난 이래 줄곧 가난뱅이 운수에 사로잡히어, 한 그릇의 밥이나 한 바가지의 마실 것조차 자주 떨어졌고, 또 겨울에도 벼옷을 걸치고 떨어야 했다. 좁고 험한 산골에 묻혀 살며, 손수 골짜기에 내려가 물 떠 마시고, 또 몸소 나무를 등에 지고 길을 걸으며 즐겁게 노래하고 읊으며 安貧樂道했노라. …… 속세의 명리영달은 나의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었고 또 속세의 악덕에 나는 검게 물들어 타락하지도 않았다. 나는 고고하고 의연한 태도로 궁색한 오락살이 집에 묻혀 마냥 마시고 마음껏 시를 지었노라.⁵⁸⁾

55) 《靖節先生集》卷三·張28B~29A, <有會而作> : “斯濫豈攸志, 固窮夙所歸, 餒也已矣夫, 在昔余多師。”

56) 《靖節先生集》卷五·張7B~8A, <歸去來兮辭> : “倚南窗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富貴非吾願, 帝鄉不可期.”

57) 《靖節先生集》卷六·張7B~8A, <五柳先生傳> : “環堵蕭然, 不蔽風日, 短褐穿結, 簞瓢屢空, 晏如也. 常著文章自娛. 顏示已志, 忘懷得失. 以此自終.”

58) 《靖節先生集》卷七·張5A, <自祭文> : “自余爲人, 逢運之貧, 簞瓢屢罄, 絺綌冬陳. 含歎谷汲, 行歌負薪. ……寵非已榮, 涅豈吾緇. 捭兀窮臚, 酣飲賦詩.”

인간의 번뇌와 사회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의식하는 데 있다. 또한 내면적인 實在와 외형적인 事物의 乖離도 인간 번뇌의 큰 요인이다. 결국 나(我)와 물(物)을 잇는 것이 '참삶'을 찾는 길이다. 따라서 '참삶'에 가까이 가는 한 방편으로 陶淵明은 安貧樂道했던 것이다.

(2) 守分知足

陶淵明은 一生 가난에 시달렸다. 초가집에 기거하며 헤진 짧은 배옷을 입고, 식사는 항상 세끼를 제대로 잇지 못하였으며 이웃 마을에서 결식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을 보내면 누구나 비참하고 서글픈 것이나 그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치를 터득했으니, 孔子의 守分知足의 생활을 본받아 부귀 빈천에 마음을 얽매이지 않음이 하나의 뜻있는 선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활이 가난하여 고생스러움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마음을 평안히 하고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우선, 陶淵明의 <五柳先生傳>을 보자. 그의 사상이 잘 배어 있다.

선생의 성품은 한적하고 평화롭고 말이 적었으며, 명예나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다. 책읽기를 좋아했으나 지나치게 따지거나 집착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에 일치하는 글을 대하면 즐겨워서 끼니를 잊고 탐독하였다.⁵⁹⁾

作中에 引用된 人物과 內容을 살펴보면 接輿의 拒仕, 二疏의 淸言, 楊朱의 逋路, 袁安의 至德, 阮公의 淸節, 楊王孫의 裸葬, 朱買臣의 負薪, 北郭妻의 容膝 등이 나타나 있다.

楚의 隱者 接輿집에 楚王이 사신을 시켜 수레에 많은 금을 싣고 와서 출사하라고 청했다. 접어는 이를 거절하고 수레를 돌려 보냈으나 대문 앞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깊이 파졌다고 한다.⁶⁰⁾ 陶淵明이 가난한 마을에 깊이 묻혀 사니까 출사를 권하는 사신이나 예물을 실은 수레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친한 벗들은 수레를 일부러 내 집으로 돌려 무척 많이 찾아와 준다.

59) 《靖節先生集》卷六·張7B, <五柳先生集> : “閒靜少言, 不慕榮利. 好讀書, 不求甚解, 每有會意, 便欣然忘食.”

60) 《韓詩外傳》 : “楚狂接輿妻曰, 門外車轍何其深.”

窮巷隔深轍 頗迥故人車 <卷四.讀山海經 其一>

前漢의 疏廣과 疏受는 叔姪間이다. 大自然의 造化는 四時, 즉 春夏秋冬을 굴린다. 그래서 功을 이룬 자는 스스로 떠나간다. 각 계절도 역시 제각기 그 發生의 공을 이루며 스스로 물러난다. 周나라가 쇠한 이래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대자연의 뜻을 얻었을까. 눈을 돌려 漢廷을 보건데 二疏는 참으로 이 뜻을 얻었다. 이들은 벼슬에 나갔다가 때를 맞추어 알맞게 물러났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는 돈을 뿌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으나 자식에게는 돈을 물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廣에게 권한다. 돈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면 좋으리라고, 그러나 廣은 그 잘못을 깨우쳐 준다. 어진이가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이가 재물이 많으면 더욱 큰 과오를 범한다는 淸言으로써 그들의 未悟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⁶¹⁾ 허무하고 금세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있는 삶이 아니다. 쓸데없이 물욕에 사로잡히거나 후손에게 돈을 남겨 줄 생각으로 현세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陶淵明은 二疏와 같이 떨어져 휘두를 만한 下賜恩金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탁주라도 구하여 그것에 잠시 의지해 속을 풀고자 하였다.

雖無揮金事 濁酒聊可恃 <卷三.飲酒 其十九>
 有子不留金 何用身後置 <卷四.雜詩 其六>
 雖無揮金事 濁酒聊可恃 <卷四.飲酒 其十九>

楊朱는 戰國時代의 철학자로 쾌락주의자다. “세상 사는 길이 넓고도 아득하여 양주같이 길 몰라 망설였다지.”는 아래 詩의 內容이다. 人生의 行路가 너무나 망망하고 아득하여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걱정스럽고 두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楊朱가 통곡하며 岐路에 머문⁶²⁾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있었던

61) 梁, 昭明太子蕭統, 《文選》: “張協詠二疏詩云, 揮金樂當年.”

《漢書》, <疏廣傳>: “廣乞骸骨歸, 上賜黃金二十斤, 皇太子賜以五十斤. 廣既歸鄉里, 日令家供具. 設酒食, 請族人故舊賓客, 相與娛樂. …… 賢而多財, 則損其志, 愚而多財, 則益其過. 且夫富者衆人之怨也. 吾既亡以數化子孫, 不欲益其過而生怨.”

62) 《淮南子》第十七卷, <說林訓>: “楊子見遠路而哭之, 爲其可以南可以北.”

것이다. 陶淵明은 正義라고 생각되는 守分만은 다했다. 그래서 마침내 옷을 털고 田里로 돌아왔다.

世路廓悠悠 楊朱所以止 <卷三.飲酒 其十九>

袁安은 後漢(東漢) 汝南汝陽人으로 字가 邵公이다. 문 앞에 눈이 쌓이자 막연히 멀리 나가 남에게 밥을 빌지 않았다. 낙양에 대설이 내려 열자 남짓이라 현령이 나가 보았다. 집마다 제설하러 나오는데, 袁安이 사는 문에 이르니 길이 난 흔적이 없어 安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여겼다. 사람을 시켜 눈을 치우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안이 옆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찌 나오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답하길 “대설로 사람들이 늘 부족한 식량인데 구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하니 사람들이나 현령이 어진 이라 여기고서 효렴한 사람으로 관리에 천거했다.⁶³⁾

袁安門積雪 邈然不可干 <卷四.詠貧士 其五>

阮公은 晉의 阮脩로 字는 宣子이다. 老子와 易學을 좋아했고, 성품이 검소하며 생각이 넓었으니 俗人을 보면 기뻐했다. 그러나 때로 그릇됨을 만나면 즉시 버리고 떠나갔다. 늘 거닐 때에는 百錢을 지팡이 머리에 걸고, 술집에 이르면 곧 홀로 화락했다. 세상의 작위나 부귀는 그의 마음 속에 담지 않았으며, 집안에는 담보할 저축도 없었으니 사는게 이와 같았다. 숲과 못 사이에서 노닐며 自得했다. 후에 太子의 말을 씻는 일을 하며 40세가 되어도 가난하여 결혼을 못했다. 그러자 王敦 등이 돈을 거둬 여자를 얻어 주었다. 그는 錢人, 즉 돈이 있는 여자를 얻게 되자 곧 그날로 그 벼슬을 그만두어 버렸다.⁶⁴⁾ 술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벼슬 같은 것은 마음에도 없었던 것이다.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다. 또 크나큰

63) 《後漢書》, <遠安傳> : “遠安, 字邵公, 汝南汝陽人.”

<汝南先賢傳> “時代雪積地丈餘, 洛陽令自出案行, 見人皆除雪出, 有乞食者. 至遠安門, 無有行路, 謂安已死, 令人除雪入戶, 見安僵臥, 問.. ‘何以不出.’安曰.. ‘大雪, 人皆餓, 不宜干人.’ 令以爲賢, 舉爲孝廉也.”

64) 難波常雄 等, 《中國人名辭典》, 成進社, 昭和五十三年, p.325.

두려움이다. 그러나 陶淵明은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서 진짜로 두려운 것은 飢寒이 아니라 富樂이라고 한다.

阮公見錢人 即日棄其官
 芻蒿有常溫 採菖足朝餐 <卷四.詠貧士 其五>

宋의 신하 桓魋가 자기가 묻힐 호사스러운 石棺을 삼년 이상의 세월을 들여 만들었고, 漢의 楊王孫은 자식에게 자기가 죽거든 알몸으로 땅에 묻으라고 일렀다. 王孫은 몸이 흙에서 나온 것이니 죽어 알몸으로 묻혀야 원래대로 還元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다. 陶淵明은 환퇴같이 지나친 그런 사치도 양왕손 같이 너무 검약하게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썼다. 그는 평범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했다. 그러나 천금이나 보배로 육신을 가꾸어도 죽으면 함께 사라져 없어진다. 따라서, <飲酒 其十一>에서는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이해하고 “나장이 왜 반드시 나쁘냐?”고 율기도 했다. 양왕손의 예를 들어 부귀나 물질 내지는 육신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우치고자 했다.

客養千金軀 臨化消其寶
 裸葬何必惡 人當解意表 <卷三.飲酒 其十一>
 奢侈宋臣 儉笑王孫 <卷六.自祭文>

《漢書》에 보면 吳人 朱買臣(字 翁子)이 “길을 가면서 혼자 노래하며 무덤 사이를 나무를 지고 갔다.”⁶⁵⁾고 나와 있다. 주매신이 出仕하기 전 집안이가난해 나무를 팔아 自給했는데, 길을 가며 노래하거나 책을 암송하였다. 妻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50이 되도록 부귀와 인연이 멀어, 결국 그의 처는 참지 못하고 田夫에게 시집갔다. 後에 會稽太守를 했다.

陶淵明은 좁고 험한 산골에 묻혀 살며 손수 골짜기에 내려가 물 떠 마시고, 또 몸소 나무를 등에 지고 길을 걸으며 즐겁게 노래하고 율었다. 즉, 그는 옹색하게 살면서도 주매신과 같이 守分知足으로 安貧樂道 했으니까 즐겁다는 말이다.

65) 《漢書》：“朱買臣獨行歌道中，負薪墓間。”

合歡谷汲 行歌負薪 <卷六.自祭文>

《韓詩外傳》에 北郭先生의 妻가 “네 마리의 말이 모는 수레를 타고 기마 행렬을 줄지어 다녀도 편안하게 쉴 장소는 고작 무릎을 드리울 넓이에 불과하다”⁶⁶⁾고 나와 있다. 陶淵明은 이 시에서 무릎을 드리울 만한 작은 집에 살아도 족히 마음이 편하고 도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평정하게 깊이 파고 들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평범한 투로서 담담하게 자기가 체득한 세계와 또 초탈한 인생관을 그리고 있다.

倚南窗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卷六.歸去來兮辭>

모든 사람은 俗世를 영원한 곳으로 착각하고 오직 이승의 삶을 탐내고, 또 나아가서는 이승의 名利榮達을 얻고자 아귀다툼을 한다. 그러나 陶淵明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現世의 俗世에 초연했고 信念으로써 은둔했다. 그리고 自然과 더불어 悠悠自適하고 글과 음악을 즐기며 守分知足하였다.

4) 知己之人的 有信

친구사이의 信이란 무엇인가. 벗과의 관계는 원래부터 맺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형성된 관계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벗과의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단절되지 않을 정도의 서로간의 믿음 요구된다. 이러한 믿음은 착한 마음에 의하여 맺어졌을 때만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친구에 의하여 서로의 착한 마음을 확충시켜 갈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벗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66) 《韓詩外傳》：“北郭先生妻曰，今結駟連騎，所安不過容膝。食方丈於前，所甘不過一肉。”

서로간에 믿을 지키는 것이라 하겠다.

《論語》에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선비들이야말로 友人들과 有信했을 것이다. 선비는 의·식·주 등 육체적 삶을 지속하는 제요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존재의 본질인 본마음을 회복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다.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所得을 보면 義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계사를 지낼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며, 喪事에 슬픔을 생각한다면, 된 것이다.⁶⁷⁾

利를 보면 義를 생각하며,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랫동안 곤궁해도 평소에 하던 말을 잊어 버리지 아니하면 또한 成人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志士와 仁人은 삶을 구하여 仁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서 仁을 이룸이 있다.⁶⁹⁾

陶淵明이 살던 時期는 東晉 때로 王敦·蘇峻·桓玄의 亂이 일어났는데, 東晉은 累卵之勢의 危急함이 조성되어 劉裕에게 王位를 뺏기는 기회를 주었다. 魏晉의 짧은 二百餘年 동안 內憂外患이 줄을 잇자 戰爭의 慘禍와 饑饉, 染病이 서로 계속하여 발생하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田畝가 荒廢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離散家族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큰 亂離 속에서 社會生活의 根本에 動搖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모두 道の 衰落에서 淵源이 되어 政治에 領導中心을 잃은 緣故가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陶淵明은 때론 俗世의 婬슬이라는 拘束을 박차고 田園으로 歸居하여 隱逸, 固窮節 속에서 守分知足하며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즉 뜻을 같이 하는 眞友가 절실했을 것이다. 陶淵明의 詩中에서 진실로 나의 처지를 알아주는 知己가

67) 《論語》, <十九.子長篇>第1章: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68) 《論語》, <十四.憲問篇>第13章: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 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69) 《論語》, <十五.衛靈公篇>第8章: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없다는 표현이 간혹 나타나고 있다.

작품에 引用된 人物과 內容을 보면 伯牙·鍾子期の知音, 管鮑의相知, 程杵의 餘恥, 劉龔의 惟知 등이 나타나 있다.

春秋時代의 楚人 伯牙는 거문고의 명수였고, 그의 벗 鍾子期는 伯牙의 음악적 경지를 깊게 이해했다. 鍾子期가 죽자 伯牙는 자기를 알아 줄 사람이 없다며 일체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⁷⁰⁾ 陶淵明은 이 詩에서知音, 즉 진실로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 혼자 슬퍼하여 무엇 하겠는가 한다. 강개하여 혼자 슬픈 노래를 부르며, 저 옛날의 종자기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賢者라는 것을 알 뿐이다. 그런 현자를 그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고 한다. 陶淵明은 자기의 불우한 運命을 무한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慷慨獨悲歌	鍾期信爲賢	<卷二.怨詩楚調示龐主簿遵鄧治中>
路邊兩高墳	伯牙與莊周	
此士難再得	五行欲何求	<卷四.擬古 其八>
知音苟不存	已矣何所悲	<卷四.詠貧士 其一>

管生은 춘추시대 齊의 賢相으로 이름이 夷吾, 字는 仲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 처음 사귀는 것은 보통 누구나 淡美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해에 따라 亂世에는 배반하는 자들이 많다. 管仲과 鮑叔牙만은 반드시 마음에 맞고 반드시 마음이 편안했다. 두 사람의 奇情은 서로 쌍으로 밝고 命名 또한 완전하다.⁷¹⁾ 지금과 같이 허위와 기만에 차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良友가 없다. 陶淵明은 이것을 餘意로 두고 있다.

知人未易	相知實難
淡美初交	利乖歲寒
管生稱仁	鮑叔必安

70) 《韓詩外傳》：“伯牙鼓琴，志在太山，子期曰：‘巍巍乎若太山。志在流水，子期曰：‘洋洋乎若流水。子期死，伯牙絕絃，不復鼓琴。”

《說苑》：“鍾子期死而伯牙絕絃破琴，知世莫可爲鼓也。”

71) 《史記》，〈管晏列傳〉：“……孔子糾敗，召忽死之，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爲無恥，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叔也。”

奇情雙亮 令名俱完 <卷七.讀史述 三章 管鮑>

生을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士는 知己, 즉 서로 믿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다한다. 춘추시 程嬰과 公孫杵臼는 서로 믿는 친구였다. 즉 義를 바라 귀의하였다. 晉나라 대부 屠岸賈가 趙氏를 공격하여 그 가족을 모두 죽였는데, 趙朔의 처에게 유복자가 있었으니 달아나 公孫의 궁중에 깊이 숨어서 한 아이를 낳았다. 朔의 客이었던 公孫杵臼와 程嬰은 계락을 잤다. 杵臼가 다른 아이를 업고 산 속에 숨어 있을 때, 嬰이 岸賈에게 거짓 발설하였다. 岸賈가 명하여 杵臼와 아이를 죽였는데, 이 때 嬰은 진짜 고아를 안고 山中에 숨어들어 드디어 난을 피하게 되었다. 그후 이 고아가 입신(15세)하여 조씨가 된 후에 嬰이 마침내 자살하니 杵臼의 우정에 보답한 것이었다.⁷²⁾ 公孫杵臼는 나라를 위해 죽었고 程生, 즉 程嬰은 조나라를 위해 생을 15년간 지켰다. 그리하여 죽지 않으면 아니된 때에 이르자 칼을 휘둘러 결연히 자살했다. 살아 있으면 餘恥가 있을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遺生良難 士爲知人
望義如歸 允伊二子
程生揮劍 懼茲餘恥 <卷七.讀史述 四章 程杵>

세상사람 모두 文人, 즉 張仲蔚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나 오직 劉龔(字 孟公, 長安人)이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⁷³⁾ 세상에는 뜻을 같이할 만한 사람이 드물고 오직 하나 이 劉龔만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으니,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陶淵明의 처지도 장중울과 같으니, 의외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맹공과 같은 이가 이곳에 없음을 비탄하고 있는 것이다.

孟公不在茲 終以翳吾情 <卷三.飲酒 其十六>
仲蔚愛窮居 繞宅生蒿蓬

72) 《史記》, <趙世家> : “……後其孤立爲趙氏後, 嬰乃自殺, 以報杵臼.”

73) 《後漢書》, <蘇竟傳> : “劉龔字孟公.”

《高士傳》 : “張仲蔚, 平陵人……博物善屬文, 好詩賦, 常居窮素, 所處蓬蒿沒人……時人莫識, 惟劉龔知之.”

止有一劉龔 此士胡獨然 <卷四.詠貧士 其六>

陶淵明은 어려서 修己治人을 사명으로 여기는 儒家의 경전을 즐겨 공부하고 정신과 인격을 도야했다. 그러나 세상이 나빴으며, 때가 맞지를 않았다. 그는 나이 40이 되도록 이룩한 일도 없고 또 세상에 나타나지도 못했다. 결국 한평생 固窮節만을 지키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어둡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밝은 해를 맞이하고자 기다려도, 새벽을 알리는 닭조차 울지를 않는다. 또한 가난한 문인을 알아주던 孟公과 같은 사람조차 없으니 陶淵明은 우울하고 암담하기만 했다. 마음을 터놓고 虛心坦懷하게 이야기할 友人의 대상을 자연에서 찾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도 知己之友를 찾기 힘든 세태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만큼 예를 든 선비들의 사귀는 고귀하다 하겠다. 그는 자기의 처지와 심정을 天地萬物의 흐름에 비유하여, 날이 밝는 새벽에 이르도록 平靜을 못찾고 대화의 상대를 그리워하며 不眠하는 모습이 <雜詩 其二>에 보인다.

氣變悟時易 不眠知夕永
欲言無予和 揮杯勸孤影 <卷四.雜詩 其二>

기운 변하니 때가 바뀔을 깨닫고, 자지 않으니 저녁이 긴 것을 알겠다.
말하고자 하여도 내게 응하는 이 없으니, 잔을 휘두르며 외로운 그림자에 권한다.

그는 기후가 변한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뀐 것을 깨달으며, 그래서 밤도 더욱 더 길어진 것을 알게 된다. 말을 주고받고 싶지만 상대가 없으니, 술잔을 들어 오직 자기 자신의 외로운 그림자에 권하는 것이다. 寂寞無聊한 감을 주는 시로서 陶淵明의 고독과 깊은 우수를 생각해 한다.

5. 結 語

이상으로 魏晉時代의 代表的 作家인 陶淵明의 研究 一環으로 文學의 背景과 儒家의 文學觀, 그리고 思想의 道출을 위해 詩作品의 內容과 引用人物의 精神과 對比하면서 그의 儒家思想에 關係 探究해 보았다.

中國의 가장 위대한 田園詩人이자 隱逸詩人의 宗이라고 불리우는 陶淵明은 政治暗黑의 時代와 淸談이 盛行한 魏晉時代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生涯와 作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격과 詩가 眞率·自然·純樸 그리고 안정된 미를 품고 있다. 다시 말하면 陶淵明은 지극히 熱烈하고 豪氣로운 사람으로 意氣가 飛揚했지만, 中年 이후부터 점점 당시의 混亂스러운 社會에 짐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후, 그는 山水에 情을 依託하여 大自然의 懷抱 속에 들어갔는데, 自然의 아름다움과 人生의 妙味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다. 또, 여기에 자신의 心身修養에 극히 嚴正했던 關係로 淸談에 빠지지 않았으니. 陶淵明은 당시 盛行했던 東晉末期의 道教와 佛教 위에 家庭의 傳統의 儒家風을 造化하여 山水 田園의 樂趣를 素朴하게 묘사하였다. 孔子는 “사람이 自己의 직업이나 地位 따위에 戀戀하여 할 일을 못하거나 하는 爲人은 선비가 아니다.” 《論語》〈憲文篇 第三章〉라고 했다. 왜냐 하면, 君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居無求安”〈學而篇 第十四章〉하는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不仁者는 困窮節約의 生活을 오래 견디어 내기 어렵다. 安逸을 찾아 行惡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의 安樂充足한 生活을 通하여 善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 안 가서 절로 懶怠한 生活에 빠져 墮落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里仁篇 第二章〉라는 孔子의 말이다. 窮約이나 安樂이나 간에 그 主體性을 左之右之할 수 없는 것이다. 窮約 속에서도 오히려 利仁할 수 있고 安樂 속에서도 오히려 安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는 修己 또는 正己, 곧 自己와의 싸움에서 시작하여 世界와의 싸움을 거쳐 마침내는 다시 自己에의 싸움으로 되돌아 가는 修道之士다.

富貴榮華는 구태여 避할 것이 못되나 그것들 속에서만 生의 기쁨과 보람과 眞實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排斥하려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그것들은 眞實한 生의 實現을 복돋는 手段이 되고 또 이를 妨害하지 않는 限에서만 有價値한 것이다. 孔子가 君子實現에 의한 主要方法으로 提示한 것이 바로 富貴와의 對決이며 그 克服이다. 價値愛와 價値意志의 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盲目的으로 이를 打倒의 敵으로 삼은 건 아니다. 富貴 自體는 反價值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安逸에 흐르고 價値意志를 弱化시키거나 喪失케 할 것을 憂慮해서다.

이와 같이, 孔子가 추구하고자 했던 君子의 價値觀을 몸소 실천했던 陶淵明은 또 中國文學 發展史에서 當代文學의 一家를 이루었다. 修身固窮을 터득한 고결한 선비로서, 機會主義的 文士가 아니라 勞動을 신성시한 樂天知命한 處士였으며, 國家의 患亂으로 극도로 疲弊된 현실에 지식인으로서 마음껏 筆致를 휘두른 志士이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作品에 나타난 陶淵明의 儒家思想을 살펴보면 人格과 文學이 相付되는 修己治人의 부단한 연마와 憂國忠節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生을 일관되게 固窮節操하고 守分知足하면서 安貧樂道를 스스로 體驗했던 偉大한 人格의 所有者였던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政治暗黑의 時代에 살면서도 隱逸自重하며 선인들의 고고한 清節精神을 본받고자 했으니, 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서로 虛心坦懷하게 이해하고 따라줄 사람, 즉 知己의 有信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參考文獻>

- 陶淵明研究資料彙評：詩文集評，明倫出版社，1972。
- 湯漢：陶靖節詩註，臺灣商務印書館，1972。
- 楊家駱：陶靖節集注，世界書局，1974。
- ”：陶淵明詩文集評，世界書局，1974。
- 丁福保：陶淵明詩箋註，文光圖書公司，1974。
- 黃仲崙：陶淵明作品研究，帕未爾書店，1975。
- ”：陶淵明評傳，帕未爾書店，1975。
- 蔣祖怡：詩歌文學叢要，正中書局，1975。
- 王叔岷：陶淵明詩箋證稿，藝文印書館，1975。
- 王玉瑞：陶淵明，常春樹書坊，1976。
- 方祖燊：陶潛詩箋註校證論評，學海出版社，1977。
- 周億孚：中國文學概論，經氏出版社，1977。
- 鄭棟生 等：中國文學思想史，臺灣開明書店，1977。
- 劉守宜：中國文學評論，聯經出版社業公司，1977。
- 張仁青：魏晉南北朝文學思想社，文史出版社，1978。
- 劉維崇：陶淵明評傳，黎明文化事業公司，1978。
- 王雲五：晉陶靖節先生潛年譜，商務印書館，1978。
- 蕭望卿：陶淵明批評，臺灣開明書店，1978。
- 羅聯添：中國文學史論文選集，學生書局，1978。
- 孫守儂：陶潛論，正中書局，1978。
- 游國恩 等：中國文學史，中國圖書刊行社，1978。
- 林明德 等：散文與評論之部，巨流圖書公司，1978。
- 前野直彬：中國文學史，長安出版社，1979。
- 梁啓超：陶淵明，商務印書館，1980。
- 吳宏一 等：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叢刊，幼事文化事業公司，1980。
- 長建：中國文學批評論集，天華出版社業公司，1980。
- 朱義雲：魏晉風氣與六朝文學，文史哲出版社，1980。
- 尼微遜 等：儒家思想的實踐，臺灣商務印書館，1980。
- 高大鵬：陶詩新論，時報文化公司，1981。
- 郭銀田：田園詩人 陶淵明，桂冠圖書公司，1981。
- 青木正兒：中國文學개론，臺灣開明書店，1982。
- 敏譚：中國文學理論批評史，人民文學出版社，1982。
- 本社編輯部：中國文學簡史，水芙蓉出版社，1982。
- 郭紹虞：照隅室古典文學論集，上海古籍出版社，1983。

- 本局編輯部：中國文學發達史，臺灣中華書局，1984。
- 李辰冬：陶淵明評論，東大圖書有限公司，1984。
- 宋丘龍：陶淵明詩說，文史哲出版社，1984。
- 華正書局編輯部：中國文學發展史，華正書局，1984。
- 逯欽立：漢魏六朝文學論集，陝西人民出版社，1984。
- 羅根澤：羅根澤古典文學論文集，上海古籍出版社，1985。
- 洪順隆：六朝詩論，文津出版社，1985。
- 青木正兒：中國文學思想史，春風文藝出版社，1985。
- 逯欽立：陶淵明集，里仁書局，1985。
- 王光前：陶淵明全集，前程出版社，1985。
- 曹道衡：中古文學史論文集，中華書局，1986。
- 沈振奇：陶謝詩之比較，學生書局，1986。
- 呂慧鵬等：中國古代著名文學家，山東教育出版社，1986。
- 晉陶潛撰：靖節先生集(全)，臺灣中華書局，1986。
- 王運熙等：中國文學批評史，上海古籍出版社，1986。
- 王熙元：古典文學散論，學生書局，1987。
- 威煥填校：靖節先生集，華正書局，1987。
- 楊勇：陶淵明集校箋，正文書局，1987。
- 李澤厚等：中國美學史，谷風，1987。
- 編輯委員會：朱光潛全集，安徽教育出版社，19887。
- 王達津：古典文學研究叢稿，巴蜀書社，1987。
- 王國瓔：中國山水詩研究，聯經出版社業公司，1988。
- 朱靖華：簡明中國文學史教程，齊魯書社，1988。
- 吳乃恭：儒家思想研究，東北師範大學出版社，1988。
- 候爵良：陶淵明名篇賞析，北京十月文藝出版社，1989。
- 丁仲祐：陶淵明詩箋注，藝文印書館，1989。
- 張松如等：中國詩歌史，吉林大學出版社，1989。
- 古直：陶靖節詩箋，廣文書局，1990。
- 魏政申：陶淵明探稿，文津出版社，1990。
- 勞幹：魏晉南北朝史，中國文化大學出版部，1991。
- 羅宗強：玄學與魏晉士人心態，浙江人民出版社，1991。